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제1217호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성장 이룬 선배세대 복지에 최태원 회장 1000억원 쏜다

SK, 저소득 노인 주거 안정 아파트 건설 사업 재원 기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이끈 선배 세대들의 복지를 위해 '통 큰' 투자를 결정했다. 경제발전에 기여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층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 향후 3년간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 ▶관련기사 9면

SK그룹은 19일 이문석 SK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이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서울 동작구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저소득 노인용 주택·복지 혼합동(棟) 아파트 건설사업' 재원 마련 기부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SK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200억원, 2016년 400억원, 2017년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기부한다. 정부가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며, 세부 기부 시기는 정부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8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SK가 저소득층의 노인복지 문제에 주목한 것은 노인 세대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서도 적절한 사회적·경제적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SK그룹은 17일 최 회장과 전 관계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경영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광복 70년의 위대한 여정을 만들어 온 독립유공자를 비롯해 선배 세대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온 선배 세대와 국가 유공자,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SK가 기여해야 하는 것이 광복 70년의 의미"라며 "이와 관련한 대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SK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선배 세대들을 위한 복지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우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용 주거복지 사업에 기부금을 내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KTB자산운용, 무상감자 재추진

재무구조 개선 일환… 2.9대 1 감자 안건 이달말 임시주총

KTB자산운용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무상감자를 10개월 만에 재추진해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B자산운용은 전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3대 1 무상감자 안건을 결의했다. 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민사소송 선고 결과에 따른 배당금 487억원이 지급되면서 회계상 자본잠식이 발생했다"며 "자본결손에 따른 회사 신용도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자본감소 방법으로 인한 감자 차익 등으로 자본결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한 차례 무산된 무상감자를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2.9대 1 무상감자의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앞서 KTB자산운용은 지난해 말 보통주와 종류주 각각 4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자본감소 결의(무상감자) 주총을 개최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무상감자는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인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로 지정되면 신규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

당시 자산운용의 PEF 투자한 부산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감자요건의 하나인 대주주 요건 제약이 발생하여 감자가 무산이 되었고, 이를 해소함에 따라 무상감자를 다시 추진하게 됐다.

한편 KTB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48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김경아 기자 kakim@

대통령 코드 맞추려…

기재부,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 관련 소비 성과 발표

"마트 매출 25.6% 증가"…휴무일 있는 주와 비교 빈축

정부가 지난 14일 임시휴무일과 관련한 유통업체 매출 성과를 발표하며 마트 휴무일이 낀 전주의 매출과 비교,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자체 통계와 업계 모니터링 수치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임시공휴일인 14일부터 일요일인 16일까지 이어진 연휴 3일간 백화점 매출액이 전주 같은 기간(7~9일)과 비교해 6.8%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면세점 매출액은 16.5%, 대형마트 매출은 25.6% 각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시휴무일이 낀 14~16일 연휴와 대형마트 휴무일이 낀 7~9일의 매출을 비교한 기재부의 셈법은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1주 전 비교일자에 포함된 9일은 대형마트 휴무일(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로 약 60%의 대형마트가 이를 따르고 있다. 때문에 기재부는 사실상 전주의 이틀치 매출을 광복절 연휴인 사흘치 매출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한 수치를 산출한 셈이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휴일 매출이 평일 매출의 1.5~2배에 이르기 때문에 휴일 영업 일수가 하루만 줄어도 타격이 크다. 그런데 기재부가 자기 치적을 알리려는 성급한 마음에 이 같은 상황을 모른 척한 채 성과만 과장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광복절 휴일 전주에 쉰 대형마트가 다소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치를 산출하면서 이를 하나하나 따로 빼서 계산할 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백화점 매출도 과장되긴 마찬가지. 전주 비교 일자인 7~9일 중 7일은 평일인 데 반해 광복절 연휴의 경우 3일 모두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일 효과를 고려한다면 6%의 매출 신장은 사실상 미미하다는 것이다.

16.5%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는 면세점 또한 해외여행객들이 주요 고객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내수진작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한국경제 조여오는 '차이나 리스크'

증시 급락 출발

글로벌 IB들 잇따라 '위기경보'

모건스탠리 '환율불안국' 포함

무디스, 韓성장률 2.5%로 낮춰

중국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당연히 한국도 그 영향권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3·4면

세계적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루치르 샤르마 신흥시장 총괄대표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중국증시의 폭락과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등으로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가 드러났다며 '중국에 의한(Made in China)' 세계 경기침체가 임박했다고 우려했다.

샤르마 대표는 지난 50년간 평균 8년을 주기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재 전 세계 경제는 2009년 이후 미약하지만 7년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곧 다음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많은 신흥국이 3% 경제성장률을 기록해도 침체에 빠진 것과 같은 타격을 받는다며 글로벌 성장률이 2%를 밑돌면 세계적 경기침체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성장률은 2%에 그쳤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9년 중반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샤르마 대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에서 중국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과잉투자와 막대한 부채로 더 이상 경제성장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세계시장에서는 중국과 수출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중국의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모건스탠리의 한스 레데커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10대 환율 불안국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율은 30%에 달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에 대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성장률 하락으로 외국 자본 유출이 이어질 것이라며 달러당 원화 가치가 내년 2분기에 12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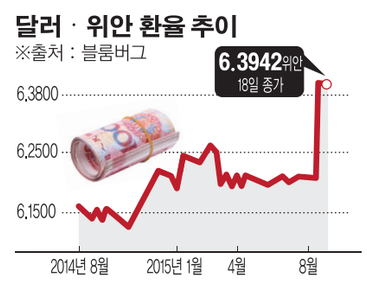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세계 경제 전망보고서에서 주요 20개국(G20)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7%로 지난해의 2.9%에서 하락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의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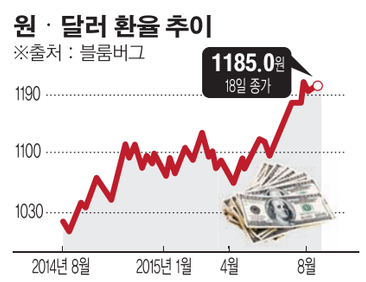
무디스는 "한국은 중국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엔저를 무기로 한 일본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중국 증시의 폭락으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밤사이 미국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한편 19일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전 거래일 대비 14.16포인트(0.72%)와 21.65포인트(3.09%) 내린 1942.19과 678.12를 기록중이다.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상장사도 '불황형 흑자'

상반기 매출 4.7% 줄고 영업이익은 7.3% 늘어

올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상장사들은 매출 감소 속에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다.

한국거래소와 상장사협회, 코스닥협회 등이 18일 밝힌 '12월 결산법인 상반기 실적'을 보면 코스피 506개 상장사의 매출(연결기준)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823조 4535억원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면

반면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보다 7.3% 증가한 52조3703억원을 기록했다. 소폭 감소한 순이익(37조9130억원) 역시 매출 감소비율에 비해 선방(-1.4%)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 매출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11.3%)를 제외하면 매출 감소비율은 7%포인트 줄어든 4.0%다. 이 기준에서 영업이익(39조4930억원)과 순이익(27조5349억원)은 오히려 19.2%와 11.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6.36%였다. 작년보다 0.7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매출 감소 상황에 영업이익률을 더 높여 이윤을 낸 셈이다. 이른바 '마른 수건도 짜낸다'는 불황형 흑자다.

코스닥 상장사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개별 재무제표 기준 902개사의 매출액(50조2309억원)은 전년보다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2조8186억원)도 0.5% 증가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순이익(2조2866억원)은 오히려 10.5%나 증가했다.

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상반기를 요약하면 '대형주 부진, 중소형주 강세'로 정리할 수 있다"며 "성장성의 관점에서 매출과 함께 이익 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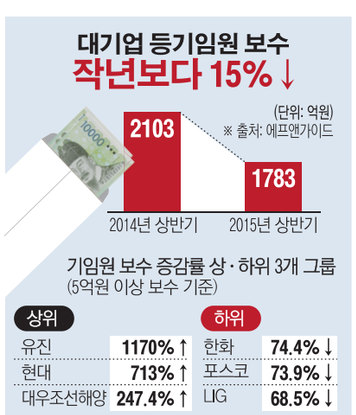
김준형 기자 junior@

데이터 뉴스 Data News

경기침체로 등기임원 보수 줄었다

경기침체 탓에 국내 대기업 등기임원의 상반기 급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대기업집단 등기임원의 보수 총액은 178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103억원)보다 15.2%(32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화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4.4% 줄어든 16억6000만원, 포스코는 73.9% 감소한 28억1000만원을 등기임원들에게 지급했다.

박성제 기자 psj@





삼성전자, 외부감사 기간 가장 길어

지난해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에 평균 15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에서 외부감사가 49일간 수행되며 최장시간이 투입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외부감사 실시 시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외감법인 1개사 평균 6명의 감사인원이 투입돼 약 8일(403시간) 동안 외부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다운 기자 gamja@

하루 한 생각 人間三樂
(인간삼락)
인간이 누리는 세 가지 즐거움
▶ 14면



정철길 사장 ▶2



조용병 행장 ▶13


부자들의 집 ▶ 18
해운대 아이파크


우리회사 최고 건축물 ▶ 19
응텡퐁 종합병원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1조 영업익' 역전의 정철길… "셀트리온 비켜" 新대장 김익래

〈SK이노베이션 사장〉 〈다우데이타 회장〉

12월 결산법인 상반기 실적

'날개 단 실적' 웃음꽃 핀 CEO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사의 성적표가 공개되며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상장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정유사들과 화학업체들이 기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오랜만에 웃었다.

SK이노베이션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했던 정철길 사장은 올 상반기에만 1조309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해 37년 만에 적자를 본 후 1년 만에 실적 역전에 성공한 것이다.

나세르 알 마하셔 S-OIL 대표도 역시 올 상반기에 851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지난해의 부진을 만회했다. 2분기에만 영업이익 5634억원을 달성한 LG화학 박진수 부회장도 호실적에 웃음을 지었다. LG화학의 영업이익이 5000억원을 넘은 것은 2013년 3분기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이다. 박 부회장은 여전히 새로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증권업의 순이익이 480.4% 증가하며 이익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지난해 벼랑 끝으로 몰렸던 현대증권을 흑자전환으로 이끈 윤경은 대표는 상반기 현대증권의 순이익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65%나 증가한 1706억80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이 기간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각각 57.3%와 1877.4%씩 성장시키며 주목받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이 주춤한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외형과 내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이다. 특히 김익래 다우데이타 회장이 눈에 띈다. 키움증권, 사람인에이치알, 다수기술 등 자회사의 성장에 힘입어 대장주 셀트리온을 제치고 코스닥 최고 알짜주로 올라섰다.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의 글로벌 흥행이 지속되며 컴투스 송병준 대표도 상반기 759억 37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미주지역 브랜드 광고에 힘입어 서머너즈워의 매출액은 여전히 성장 가도를 달리며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 시장을 뒤흔든 모바일 게임 '전민기적'의 개발사 웹젠의 김태영 대표도 상반기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웃음을 지었다. 잇따른 모바일 게임 흥행으로 증권가에서는 웹젠의 시가 총액 2조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


김익래
다우데이타 회장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송병준
컴투스 사장

불황형 흑자에도 정유·화학 선전

SK이노베이션·S-OIL 흑자 전환

현대證 윤경은 순익 2465%↑ 견인

코스닥 최고 알짜주 '다우데이타'

'신작 효과' 컴투스 송병준 759억 쑥

2015년 코스피 영업이익 '톱5'

단위 : 백만원

회사명	2014년 1~6월	2015년 1~6월	증감률(%)
삼성전자	15,676,122	12,877,304	-17.85
한국전력공사	2,056,317	4,327,850	110.47
현대자동차	4,025,607	3,338,936	-17.06
SK하이닉스	2,141,133	2,964,010	38.43
포스코	1,570,374	1,417,585	-9.73

2015년 코스닥 영업이익 '톱5'

단위 : 백만원

회사명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증감률(%)
다우데이타	49,597	172,536	247.88
셀트리온	133,601	122,016	-8.67
CJ오쇼핑	128,857	108,798	-15.57
성우하이텍	115,000	90,849	-21.00
컴투스	19,247	75,937	294.53

'못지킨 이름값' 적자전환 CEO

메르스 된서리, 지창훈·김수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철도부문 수익 빨간불, 김승탁
〈현대로템〉

실적 부진에 영업 정지, 정우진
〈NHN엔터〉

예상밖 악재에 속수무책…가혹한 성적표에 '울상'

올해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밖의 가혹한 실적을 받아든 최고경영자(CEO)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큰 충격을 받은 곳은 국내 대형 항공사들이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이끌고 있는 항공업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인한 '직격탄'을 제대로 맞으며 올해 2분기 영업이익(대한항공 -26억원, 아시아나항공 -614억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수모를 겪었다.

문제는 이들 대형 항공사의 실적이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충격이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단거리 노선의 점유율이 저비용항공사(LCC)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장거리 노선도 중동계 항공사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실적 개선이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현대로템을 이끌었던 김승탁 대표도 2분기 부진한 실적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현대로템은 올해 2분기 영업손실 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299억원으로 22.4% 증가했으나 당기순손실 26억원를 기록했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주력사업인 철도부문의 수익성 악화다. 철도부문은 국내 프로젝트 계약가 감액 및 품질 강화 비용 영향으로 226억원의 손실을 거뒀다.

최근 간편결제 사업으로의 진출 계획을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확대에 나섰던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도 1분기에 이은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 82억2000만원을 기록, 전년 대비 영업적자를 지속했다.

정우진 대표는 이와 관련해 "글로벌 9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크루세이더퀘스트'를 비롯해 '가디언헌터'와 같은 글로벌 출시작들이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 자회사인 NHN블랙픽이 성남시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악재가 이어져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김승탁
현대로템 사장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사장

권오갑·정성립·박대영, 영업손실 1~3위… 쇼크는 현재진행형

'날개 없는 추락' 조선3사 CEO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등 조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끝없는 실적 추락에 한숨을 짓고 있다.

조선 3사는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가 수백억원 수준인 다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과는 달리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며 영업이익 하위 1~3위사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올 상반기 연결기준 3조83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코스피 상장사 중 영업이익이 가장 낮은 곳으로 꼽혔다.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각각 1조5218억원, 363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영업이익 하위 2, 3위에 올랐다.

조선 3사의 올해 실적 부진은 2분기에 집중돼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 1분기 432억원의 영업적자를 냈으나 2분기에는 3조원이 넘는 적자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삼성중공업 역시 1분기에는 26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나 다음 분기에는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으며, 현대중공업은 1분기와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지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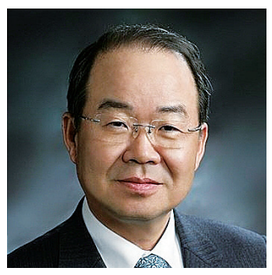
이 같은 실적 부진에 조선 3사의 CEO들은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이달 말까지 부장급과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등 고직급자 13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단행키로 결정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은 올초부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한 데 이어 임원진 교체 등 실적 부진 탈출을 위한 강수를 두고 있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역시 임직원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EO들의 노력에도 조선업의 3분기 전망은 밝지 않다. 시장에서는 조선업이 3분기에도 520억원의 영업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종의 실적부진은 3분기 시장 전체의 컨센서스 하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조선 빅3의 어닝쇼크로 3분기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라며 "시장 전체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주 대비 1.5%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ugene@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대우조선 3조 영업손실 최악성적

삼성重 1.5조·현대重 3633억 적자

고강도 구조조정…부진 탈출 온힘

3분기 시장예상치 하향조정 '우울'

조선 3사 2015년 상반기 영업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2014년 1~6월	2015년 1~6월	증감률
대우조선해양	183,287	-3,083,208	적자전환
삼성중공업	-100,216	-1,521,821	적자지속
현대중공업	-1,292,610	-363,356	적자지속



중국 GDP 1%P 줄면 다른 亞국가들은 0.3%P 떨어져

세계경제 '차이나 리스크'

대만·말레이·한국·태국 등 아시아국가 中시장 무역 의존도 높아 위기감 고조
자동차 등 핵심산업 실적 부진 직격탄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도 곤두박질

'차이나 리스크'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을 뒤덮고 있다. 증시 폭락과 경기 둔화,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가 복병처럼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실질적으로 1%포인트 하락할 경우, 그 다음 해에 다른 아시아 국가의 성장률은 0.3%P 포인트 하락한다. 특히 충격파가 큰 나라는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등이다. 일본과 인도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미즈호종합연구소는 중국발 악재의 충격파가 아시아 국가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가치기반의 무역(TIVA)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중국이 물건이나 서비스의 최종 수요처가 될수록 부가가치 기반의 수출처로서는 부담이 크다는 것.

한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2011년 기준 652억 달러로 대미 수출(588억 달러)과 대유럽연합(EU) 수출(417억 달러)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다. 그러다보니 중국이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 역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

대만도 마찬가지다. 대만도 부가가치 기반의 대중 수출액은 2011년 시점에서 451억 달러였다. 역시 대미 수출액(343억 달러)과 대EU 수출액(206억 달러)를 능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GDP에서 차지하는 대중 수출 비중은 막대하다. 대만은 9.30%로 가장 높고, 다음이 말레이시아(8.36%), 한국(5.42%), 태국(5.15%), 베트남(5.13%) 순으로 5%가 넘으며 2009년 시점과 비교했을 때 각국의 대중 수출 금액도 GDP 대비 상승 기조다.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중국 의존도가 낮긴 하지만 근린국을 통한 이차적인 파급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과 독일의 GDP 대비 대중 수출 비율은 각각 0.63%, 1.69%로 낮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차적인 여파의 영향권에서 비켜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3일간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절하가 이뤄질 경우 그 위험은 증폭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다 중국은 폭스바겐과 제너럴모터스(GM) 같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최대 시장인만큼 중국의 경기 둔화가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도 부품, 의료 기기 등 특정 분야에서는 중국 시장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것이 취약점인 셈이다.

또한 중국 경기 둔화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제유가(WTI 기준)가 한때 배럴당 41달러대로 6년 5개월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원유 가격이 다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신흥국 자본이탈 1조달러 육박… 금융위기때의 2배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 여파로 신흥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하고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기름을 부은 것이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다.

인민은행은 지난 11부터 13일까지 사흘 연속 각각 1.9%·1.6%·1.1%씩 총 4.6%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켰다. 또한 기준환율 산출 방법도 변경했다. 인민은행은 평가절하를 시작한 11일 전까지 임의로 기준환율을 정했으나 이후부터는 전날 종가와 시장 참가자들의 주문 가격, 외환 수급 현황과 주요 통화 환율 변화 등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인상 후 달러 강세가 위안화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목적으로 인민은행이 선제 대응 차원에서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이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환율 전쟁의 단초로 작용하며 신흥국에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투자은행 NN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가 주요 신흥국 19개국의 자본 유출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7월까지 13개월간 자본 순유출액이 9402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4800억 달러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NN인베스트먼트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등의 불안이 겹치면서 자본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신흥국의 주식·통화·채권 등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터키 리라와 멕시코 페소,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 가치는 지난 17일에 각각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링깃과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JP모건의 신흥시장 통화지수는 이달 2.4% 하락하며 2000년 이 지수의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찍었다.

이 같은 상황은 주식과 채권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신흥시장과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 차이는 금융위기 이래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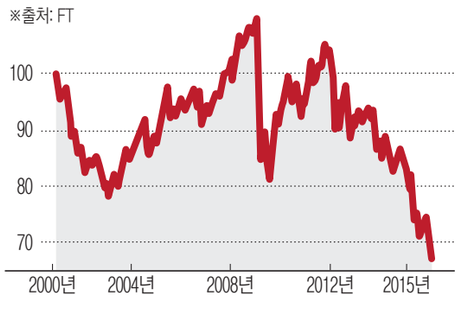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 급락을 저지하고 나서면서 위안화 가치가 안정을 되찾고 있음에도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흥시장 이탈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중국의 성장에 기대어 동반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연준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FT는 이렇게 되면 신흥시장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라보뱅크그룹의 마이클 에브리 금융시장 리서치 대표는 "부정적인 경제 펀더멘털과 연준 금리인상의 임박이라는 악재의 결합은 1997~98년 외환위기를 연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JP모건 신흥시장 통화지수 추이
※출처: FT



터키 리라·멕시코 페소 등 가치 급락
JP모건 신흥국 통화지수 사상 최저

韓 2분기 성장률, 재정위기국 포르투갈·스페인보다 낮아

전분기 대비 0.3%… 6년 만에 최저치

한국의 경제성장이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들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기 불안, 신흥국 위기,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 등 대내외 악재도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휘청거릴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한국은행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3%에 그쳐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0.1%)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특히 2분기 성장률은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낮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 2분기 1.0% 성장을 하며 8년 만의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8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포르투갈(0.4%)도 한국의 성장률보다 높았고 아일랜드는 1분기(1.4%)까지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국을 묶은 'PIIGS(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가운데 이탈리아(0.20%)만이 한국 성장률보다 낮았다.

제3차 구제금융을 앞둔 그리스는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8%의 깜짝 성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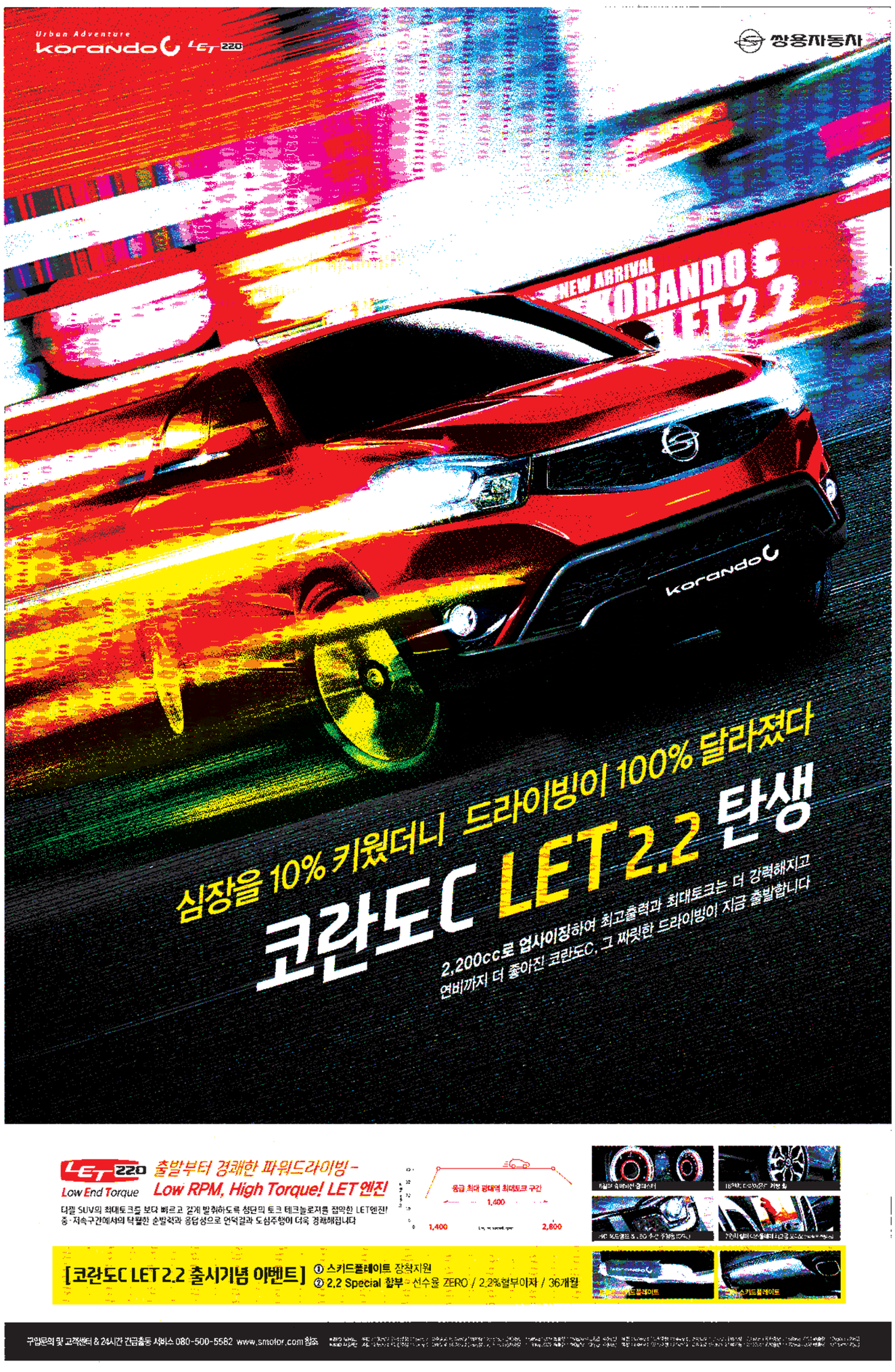
또한 영국(0.65%), 헝가리(0.50%). 독일(0.40%) 등도 한국보다 좋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의 2분기 성장률을 보면 중국(1.70%), 홍콩(0.40%), 대만(1.59%) 등이 한국보다 높다. 통화 약세로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불거진 인도네시아(3.78%), 말레이시아(2.60%)도 한국의 성장을 뛰어넘었다. 수출과 소비 부진에 삐걱거린 일본(-0.40%)과 태국(-6.44%) 정도가 2분기에 한국보다 낮은 성장을 보였다.

여기에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한국경제의 앞날이 밝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위안화 가치가 5% 추가 하락하면 향후 1년간 한국의 총 수출액이 이전보다 약 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경제가 급락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특히 한국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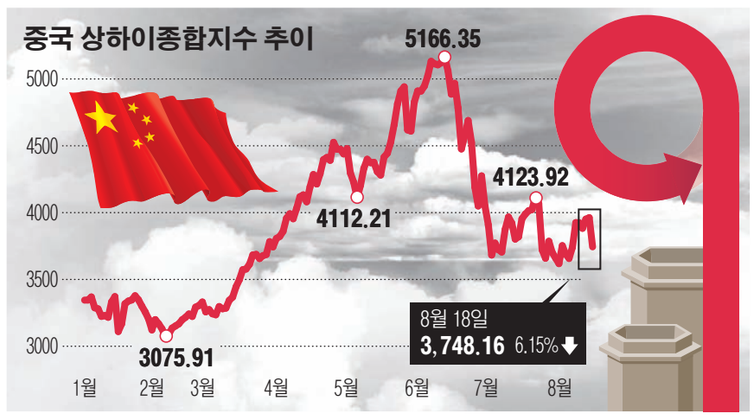
박엘리 기자 ellee@



짙어지는 글로벌 경제 '9월 위기설'

맷집 부족한 한국경제 빨간불 커졌다

中 환율카드로 세계증시 흔들
美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커져
日·유로존 등 2분기 성장도 부진
한국, 대외악재에 취약·대응 미흡
해외유동자금 급속 이탈 우려도



중국 경기 불안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 위기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의 '9월 위기설'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을 위해 유동성 확대를 추진 중인 한국경제 또한 적신호가 켜진 양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 '9월 위기설'이 세를 얻는 원인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 평가절하 때문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앞서 지난 11일 위안화 가치를 1.86% 전격 평가절하했다. 이후 사흘간 이어진 중국의 '깜짝' 위안화 평가절하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환율은 치솟았고 세계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선 중국 경기가 각종 부양책에도 회생되지 않자 중국이 환율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이 같은 자구책에도 18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6.15%(245.50포인트) 내린 3748.16으로 마감하는 등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한 양상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달에 단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9월 위기설'에 세를 보태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08년 말 이후 0~0.25%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을 꾸준히 타진해 오고 있다.

선진국들의 부진한 경기지표도 위기설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올해 2분기에 0%대의 성장을 보였다. 이에 블룸버그통신은 유로존 전체 성장률을 0.3%로 추산하고 있다.

엔저 공세로 기치를 올리던 일본의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또한 -0.4%로 지난해 3분기 이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신흥국인 러시아는 2분기 성장률이 -1.29%를 기록해 경제 상황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관광지인 태국은 무려 -6.44%나 뒷걸음질쳤다. 대만과 홍콩도 2% 미만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들은 모두 중국발 경기 둔화의 영향이 컸다.

이같이 글로벌 경제가 다양한 악재로 위기를 맞으면서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또한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지난주 중국이 사흘간 위안화 절하를 이어가면서 우리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요동을 친 상태다.

지난주 한국 코스피는 '위안화 쇼크' 이틀째 2000선을 내주며 1900선대로 물러섰고 사흘간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16원대를 오르내리며 급등락세를 보였다.

또 위안화가 흔들리면서 지난 13일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전날 기준)은 57.56bp(1bp=0.01%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전격 인하를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10일보다 4.08% 올라 아시아 국가 중 대외변동성에 가장 높은 취약성을 보였다.

정부 대응 또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기습' 절하가 있던 당일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되레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지만 위안화가 3일째 흔들린 뒤 16일께야 이를 대외 위험으로 인식했다. 일각에선 '9월 위기'가 실현되면 우리 경제의 취약성과 정부의 불명확한 대응책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 9월 악재가 실현되면 우리 경제의 해외 유동자금 이탈이 빠르게 진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선진국의 부진으로 신흥국의 해외투자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부도사태가 이어지면 수출 부진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

옛 국세청 별관 철거…시원하게 모습 드러낸 성공회성당



서울 세종대로 옛 국세청 남대문 별관 철거로 18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이 대로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생산자물가 16년만에 하락폭 최대

7월 4% 떨어져 101.43…4년 9개월새 최저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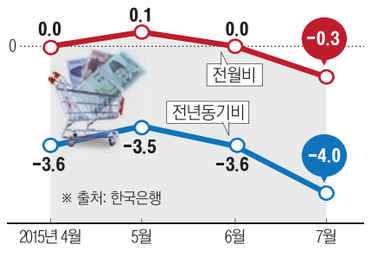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1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도매물가로, 통상 한두 달 뒤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7월까지 0%대의 상승률을 이어간 소비자물가가 향후에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1.43(2010년 100)으로 전년 동월(105.68)과 비교해 4.0% 떨어졌다. 2010년 10월 101.42를 기록한 이후 4년 9개월만의 최저치다. 생산자물가는 또 12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 7월에는 1999년 4월(-4.1%) 이후 16년 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는 전월(101.78) 대비로도 0.3% 하락했다.

생산자물가가 낮은 수준을 지속한 것은 국제유가 폭락과 관련이 있다. 정귀연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7월 국제유가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반토막 난 영향이 생산자물가를 끌어내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여기에 원자재 가격 하락까지 가세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품은 가뭄, 작황부진 등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1% 상승했다. 종류별로 보면 양파(34.1%), 포도(58.9%), 무(26.9%), 마늘(26.3%), 넙치(34.3%), 우럭(9.8%) 등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이진영 기자 mint@

생산자물가지수 증감률 추이



'원화 약세' 수출기업 일단 숨통

7월 실질실효환율 112.42…한달새 2.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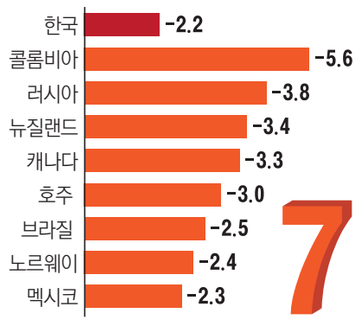
中 금융불안·美 금리인상 기대 영향

최근 원화가치가 크게 내려 국내 수출기업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전망이다.

19일 국제결제은행(BIS)이 매달 발표하는 국가별 실질실효환율 집계를 보면 한국의 7월 실질실효환율(2010년 100 기준)은 112.42로, 전달 대비 2.2% 하락했다. 실질실효환율은 세계 각국의 물가와 교역 비중을 고려해 각국 통화의 실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그 나라 화폐가치가 고평가됐고,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지난 4월 117.73을 기록해 2008년 2월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5월 116.25, 6월 114.95로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과 대비하면 석 달 사이에 상대가치가 4.5% 하락한 셈이다.

7월 실질실효환율 증감률
단위: %, 전월비 기준 ※출처: 국제결제은행



최근 원화 가치의 하락 폭은 주요 통화 가운데서도 가장 큰 편에 속한다. 6월 대비 7월 실질실효환율이 원화(-2.2%)보다 더 크게 하락한 국가는 BIS 조사대상 61개국 중 콜롬비아(-5.6%), 러시아(-3.8%), 뉴질랜드(-3.4%), 캐나다(-3.3%), 호주(-3.0%), 브라질(-2.5%), 노르웨이(-2.4%), 멕시코(-2.3%) 등 8개국에 불과했다. 이들은 대부분 최근 원자재 가격 급락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원수출국으로, 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의 통화 절하폭이 가장 컸다. 원화가치 급락의 주요 배경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그리스 위기, 중국의 증시 불안 등이 꼽힌다.

이진영 기자 mint@

정부 장밋빛 성장전망 손질
고질적 '세수펑크' 차단한다

내년 전망치 조정해 예산편성

정부가 반복적인 세수결손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에도 정부가 매년 경기 전망을 관행적으로 낙관해 오다 세수 펑크 규모를 키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지속적인 세수 결손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률을 다소 높게 전망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어 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수 결손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긴축 재정, 예산 불용액 발생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부터 전망치를 현실화하고자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제시했던 내년 경제성장률 3.5%(실질)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엘리 기자 ellee@

한국노총 노사정 복귀 보류…정부주도 노동개혁 속도붙나

산별노조 회의실 점거 반발
26일 복귀여부 재논의키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노사정 대화 복귀를 반대하는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 50여명에 둘러싸여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산별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오후 늦게 가까스로 회의를 개최해 22일 전국노동자대회 준비 상황만 점검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이 미뤄졌다. 산하 조직들의 극심한 반발에 발목이 잡혀서다.

한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오는 26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쟁점에 대한 정부의 양보안을 이끌어내지 않는 한 내부 갈등을 수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논의의 진전이 기대됐던 노동시장 개혁은 다시 정부 주도로 흘러갈 가능성만 더욱 커지게 됐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중요 정책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논의하려 했지만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 수십명이 회의실까지 점거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도부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화 복귀를 결정했다"며 "노사정 대화 결렬의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 사안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한노총은 일단 노사정 대화 복귀 논의를 26일 열리는 다음 중집으로 미뤘다. 일단 이날 노사정 대화 재개 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한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위 복귀'로 가닥을 잡은 데다, 22일 전국노동자대회가 끝난 후라 대화 참여 명분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반대파들도 이미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린 만큼 26일 중집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노총이 노사정위 논의에 들어오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뜻을 안 굽힌다면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정부의 독자적 노동시장 추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부는 한노총 노사정 복귀 결정이 유보되자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대화를 통한 대타협을 원하는 대다수 현장 근로자와 국민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노총에 다시 한번 '선복귀, 후논의'를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무던히도 많은 애정을 갖고 기다렸음에도 또 무산된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 대화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만큼 정부의 독자적 개혁작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여의도 인물 이동학 새정치연합 혁신위원

86세대 용퇴 주장에 임금피크제 수용 촉구
'제2의 이준석' 연일 당에 쓴소리

이동학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이 당에 연일 쓴소리를 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인영 의원 등 당내 86세대 의원들의 용퇴를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의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1982년생으로 혁신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적다.

젊은 나이에 혁신위에 영입돼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낸다는 점에서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과 닮은꼴이라는 의견도 많다. 이 전 위원장은 1985년생으로, 혁신위원장 시절 인사 검증 상설기구 신설을 추진하는가 하면 현 정부 초기 때 총리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을 떠나서도 그는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를 냉정하게 평가하며 비판했다.



다만 이동학 위원은 정당 경험이 많은 반면 이준석 전 위원장은 지난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정당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둘은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한편 이동학 위원은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 경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혁신위원이자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의중 기자 zerg@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달 10일 선고

소비자 20명 '부당이득반환청구'
첫 법원 판단…유사소송에 영향

40여년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전력 소비자들이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단체소송에 대한 1심 결론이 다음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9월 1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기요금 소송에 대한 첫 판단으로,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참고할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을 불공정한 것으로 볼지 여부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사실상 7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씨 등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누진율은 일정률로 표현할 수 없고 전력 사용량에 따라 각 단계별로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며 "법률이 아닌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고객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누진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징수체계를 통해 저소득층을 배려하고, 전기 과다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그중 20명을 대리해 지난해 8월 첫 소송을 냈고, 이후 전국 법원에서 유사소송이 이어졌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경복궁 옆 호텔 대신 '복합문화허브'

대한항공, 옛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케이-익스피어런스' 2017년까지 조성
'국정 2기, 문화융성 추진계획' 공개

대한항공 소유인 경복궁 옆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한국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허브 공간인 가칭 '케이-익스피어런스(K-Experience)'가 들어선다. 당초 대한항공이 해당 부지에 세우려 했던 호텔 건립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 2기, 문화 융성 방향과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문화허브는 정부가 문화 융성을 위한 핵심 기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존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에 추가될 계획이다. 문체부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성배 대한항공 상무는 "케이-익스피어런스는 LA LIVE, 상하이 신천지, 록폰기 힐스와 같은 세계적 문화시설과 같이 탈바꿈해 볼거리·먹을거리·살거리 등 한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전통미를 살리되 젊은층도 호응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결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이-익스피어런스는 1만1000평에 이르는 부지 전체를 개발하는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며 "오는 2017년까지 지하 3층, 지상 4-5층 규모로 1차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케이-익스피어런스는 이 같은 취지에 따라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모둠공간', 송현동의 지역적 특색을 상징화할 수 있는 '전통공간'으로 구성된다.



경복궁 옆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가 있던 부지(3만7000㎡)에 한국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칭 '케이-익스피어런스(K-Experience)'란 이름의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현동 복합문화공간 부지의 모습. 한편 이 땅의 소유주인 대한항공이 그동안 추진해온 7성급 한옥호텔 계획은 무산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번 문화허브 조성 결정에 따라 당초 대한항공이 추진해왔던 숙박시설인 호텔 건립은 당분간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송현동에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숙박시설을 제외한 문화융합센터 건립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추후 상황과 여건이 된다면 호텔은 다시 지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포스코 비리 수사' 불씨 다시 살아나나

검찰이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의 영장을 청구하며 꺼져가던 포스코 비리 수사의 마지막 불씨를 살렸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 그룹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각된다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될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8일 배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그동안 검찰은 배 전 회장이 포스코그룹, 특히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배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영포라인'으로 분류됐던 인물로 정 전 회장과는 포항제철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포스코 재임 동안 동양종건이 특혜를 받아 건설사업을 수주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돈이 정 전 회장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동양종건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인도 및 인도네시아 법인으로부터 총 7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총 공사비는 2억3332만550달러(약27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배 전 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양종건과 운강건설, 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60여억원의 회사 돈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양종건 자산을 계열사인 운강건설이나 영남일보 등에 몰아줘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와, 문서를 조작하는 수법 등을 통해 200억원 이상의 사기 대출을 진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은총 기자 kec@

박기춘 구속수감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9일 오전 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계천·대학로 옥외 '파라솔 식당' 허용된다

서울시, 민생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예비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가능

서울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의 옥외 영업이 연내 허용되고, 공원 내 푸드트럭도 오는 10월 도입된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범위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18일 발표하고 민생경제 활성을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 2곳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을 연내 허용한다.

아울러 조례 상 전면 금지된 벼룩시장, 농부시장 등 공원 내 상행위는 지자체 등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가 열릴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다.

기존 상권과 마찰로 도입이 힘들었던 공원 내 푸드트럭은 오는 10월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조례나 방침은 조기 개정하고 법령과 정부지침은 개정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높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완화하고,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각종 불합리한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예비 신혼부부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유혜은 기자 euna@

롯데리아도 세무조사

서울국세청, 이달 11일까지 진행
정기조사…경영권 분쟁 관련없어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은 롯데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롯데리아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롯데리아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19일 국세청과 롯데리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롯데리아 본사에 조사 요원들을 보내 이달 11일까지 한 달 이상 세무조사를 벌였다. 과세 통지 등 조사 결과는 아직 롯데리아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번 세무조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간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국세청은 앞서 롯데그룹 광고 계열사인 대홍기획의 세무조사에도 착수한 바 있다.

롯데리아 측은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마다 받는 정기 조사"라며 "최근 벌어진 경영권 분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민정 기자 puri21@



“OECD국 중 가장 단단한 유리천장”… 너무 느린 ‘변화의 바람’

〈英 이코노미스트〉

미래와 여성

1부 여성과 경제

① 저출산 고령화, 여성에 답 있다
②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책
③ 유리천장은 어떻게 작동하나

2부 여성과 금융

직장인 여성 80%가 성차별 느껴
고위 관리직비율 OECD 평균 이하

‘여성최초’가 아직 화제되는 사회
“女임원의무할당제 도입” 목소리

양성평등 실천하는 기업들

신용보증기금	2013년 여성관리자 수(4급 이상) 90명 → 2014년 117명 → 2015년 6월 기준 155명
롯데그룹	여성 간부 승진율 2015년 전체 간부 승진율 대비 10% 상향 목표
CJ그룹	9개 계열사 20여개 직무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SK이노베이션	육아휴직(1년) 후 연속하여 육아기 단축근로(1년) 활용 가능토록 제도화
KT&G	자동육아휴직제: 출산휴가 후 근로자의 별도 신청없이 육아휴직 사용
한화그룹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 평가시 평균등급 부여
LG그룹	전체 종업원 2430명 중 여성인력이 38%,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30% 고용
한국수자원공사	신입사원 채용시 여성채용목표제(30%) 운영
롯데닷컴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이마트(연수점)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재능그룹	2015년 1월 기준 재능그룹 전체 임직원 1139명 중 여성근로자 비율 872명(77%)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 제19회 BPW 골드어워드 수상(2013) – 여성인재 지속적으로 육성, 확대
코오롱	2002년부터 대졸신입사원의 30% 이상을 여성 의무선발하는 여성인력할당제 도입
KT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가능케 하고, 2년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대한항공	여성인력의 높은 점유율 및 지속적인 고용확대 노력 –인사관리상 남녀 평등기회 부여
웅진그룹	웅진그룹의 정규직 직원 4500여명 중 여성 비율은 45%

미래와 여성

1부 여성과 경제

③ 유리천장은 어떻게 작동하나

직장인 여성 80%가 성차별 느껴 고위 관리직비율 OECD 평균 이하

‘여성최초’가 아직 화제되는 사회 “女임원의무할당제 도입” 목소리

“OECD국 중 가장 단단한 유리천장”… 너무 느린 ‘변화의 바람’

〈英 이코노미스트〉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① 한국씨티그룹

200년이 넘는 씨티그룹의 기업문화는 ‘다양성’으로 정의된다. 글로벌 금융기관인 씨티는 오랜 기간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해 오면서 인종, 출신, 성별 등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평가하는 다양성 문화를 정착시켰다. 한국씨티은행도 씨티그룹의 문화 DNA를 그대로 흡수했다. 지난 2006년 한국씨티은행 내 ‘다양성위원회’와 함께 ‘여성위원회’를 만든 것도 이 같은 문화적 배경에서 시작한다.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여성위원회를 통해 한국씨티은행 내 여성 인력들이 역량을 펼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활발하게 논의하며 여권 신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신문로 소재 씨티코프 빌딩에서 한국씨티은행 다양성위원회 주최로 열린 여성리더십 관련 세미나에 한국씨티은행 여성 직원들이 참여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씨티은행

특강 멘토링 아카데미 열어 ‘여성인재’ 키우기

여성위원회 운영 10년째 여권신장 논의
금융권 첫 산학협동…2480명 경력개발
정시퇴근·자율근무·육아휴직 등 장려
여성 임직원 절반…부행장 11명 중 3명

◇여성 인재 교육에 박차…일과 삶의 균형 방점 = 씨티그룹은 고위급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 리더십 포럼과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 한국씨티은행도 여성 인재들을 선발해 매년 꾸준히 뉴욕 본사 차원에서 주최하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계열사별 소그룹 활동 등을 통해 여성 지도자 특강,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공헌 활동, 지역별 네트워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직원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친목,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이화-씨티 글로벌 금융아카데미·여성지도자상·여성기업인아카데미 등 대외적 활동을 통해 여성 인재 개발과 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및 자기계발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금요일을 자기계발의 날로 정해 정시퇴근제를 운영 중이며, 탄력적 근무시간 및 재택근무제도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이는 육아와 가사를 부담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 자율근무 활용 직원 중 여직원 비율이 현재 64%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자녀양육을 위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와 다양한 국내·주말 테마프로그램 실시 등 휴가 사용 권장 문화를 조성 중이다.

◇타 금융사 대비 높은 여성 임원 비율 = 과거에는 남성들이 독차지하던 자리에 여성 지점장, 본부장, 부행장들이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여성 특유의 친화력과 섬세함이 요구되는 콜센터뿐만 아니라 영업점, 재무, 고객만족, 마케팅 등 여러 업무에서 포괄적으로 여성들이 점차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불과, 여성에게 제약적인 ‘유리천장’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여성 임직원 비율은 48.4%, 여성 부행장 비율은 27%(11명 중 3명)로 여성 및 다양성 문화 강화에 선도적이다. 이 같은 문화는 한국씨티은행이 운영 중인 여성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에서 비롯됐다. 한국씨티은행 여성 임직원들로 구성된 여성위원회는 교육 및 개발, 사회공헌, 네트워킹 등 각 분과별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지도자상, 이화-씨티 글로벌 금융아카데미, 씨티-중소기업연구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진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권 신장, 은행을 넘어 사회공헌으로 = 한국씨티은행은 ‘여성 및 다양성’ 부문을 사회공헌의 4개 중심축 중 하나로 정하고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먼저, 금융권 최초로 금융 분야 진출 여성 인재들의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해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01년부터 이화여대-씨티 글로벌금융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학생 2480여명의 경력개발을 도왔다.

또한 다른 기관과 협력해 여성지도자를 발굴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여성의 권익을 세우기 위해 기여해 온 여성지도자들에게 ‘한국여성지도자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중소기업연구원과 씨티-중소기업연구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여성 기업인의 리더십을 키우고, 본받을 만한 여성 기업인의 역할 모델 발굴을 위해서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를 위해 우수 여성 기업인 시상을 위한 ‘여성기업인상’과 여성기업아카데미 등을 운영 중이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
굿네이버스

방학이 되면 현수는 혼자가 됩니다

영어학원, 태권도 교실, 과학캠프, 가족여행
방학이 더 바쁘다며 투덜대는 친구들...
현수는 그 투정조차 부럽습니다

작은방 안에서 혼자 놀다 보면
친구들과 함께 놀던 시끌벅적한 학교가 그립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들은 누가 챙겨줄까요?

정기후원신청
1644-7911

굿네이버스 희망나눔학교 검색

굿네이버스 희망나눔학교는 방학 중 빈곤가정아동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고객을 위한,
최대 5억 원까지
연 3.5% 특판RP

기본수익률 연 1.5% + 추가수익률 연 2.0%
3개월 예치시/세전, 2015.7.1기준/신규개인고객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RP 수익률 적용



대신증권 신규고객 특판RP 한정판매

대　상: 신규고객(주민번호기준)
기　간: 2015.7.1 ~ 한도 소진시까지
한　도: 최대 5억원
수익률: 연 3.5%(세전, 3개월 예치시)
조　건: 체크카드 발급 및 10만원 이상 자동이체(1년 이상)

*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RP 수익률 적용
* 중도해지 시, 특판RP 수익률은 기본수익률 적용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특별판매조건등 세부사항은 영업점 및 고객감동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이 손실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RP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P의 만기일 이전 중도환매할 경우 당초 약정수익률보다 낮은 중도해지수익률로 지급됩니다. *RP는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한국금융협회 심사필 제15-04405호(2015.06.26~2016.06.25)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메가뱅크 'KEB하나' 오늘 본인가

금융위 정례회의서 승인될듯
내달 1일 출범… 총자산 290조
통합은행장은 이달말에 결정
김정태·김한조·김병조 등 거론



KEB하나은행 재무 현황 ※ 출처: 하나금융

하나		외환
171조원	총 자산	119조원
5606억원	순이익(상반기)	2313억원
0.66%	ROA	0.36%
9.02%	ROE	4.61%
114조원	원화대출	54조원
122조원	예수금(2분기 말잔)	69조원
1.21%	고정이하여신비율	1.53%

하나·외환은행이 통합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일 'KEB하나은행'으로 새출발한다. 이달 말 통합은행장 선임 이후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정비를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대한 본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정례회의에 하나·외환은행 통합 본인가 안건이 상정됐다"며 "통합의 전제조건이었던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인가를 받게되면 하나·외환은행은 'KEB하나은행'은 다음달 1일 본격 출범한다. 두 은행의 총 자산은 290조원(6월말 기준)에 달한다. KB국민은행(282조원), 신한은행(261조원), 우리은행(279조원)보다 많다. 그야말로 '메가뱅크'다.

하나금융은 통합 은행이 출범하면 연간 3121억원(세전 기준)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금융과 프라이빗뱅킹(PB)에 강한 하나은행이 기업·외환금융에 강점을 갖고 있는 외환은행과 통합하면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제 남은 것은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다.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두 은행 임원들은 지난달 중순 노조 타결 이후 거의 매일 수뇌부 회의를 갖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통합은행장은 출범 직전인 이달 말 결정된다. 김정태 회장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갖고 자격조건 및 향후 일정을 결정한 뒤 31일 단독후보를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상정해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사내이사로 선임된 김정태 회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 부행장이 모두 통합은행장 후보다.

우선 거론되고 있는 가능서은 김 회장의 행장 겸직이다. 통합은행의 조기 안착을 위해 노조와의 합의를 이끌어 낸 김 회장이 직접 방향키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주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김 회장의 겸직 방안을 수그러들고 있다.

통합은행 논의가 나올때부터 가장 유력했던 후보는 김한조 외환은행장이다. 김 회장을 견제하며 직언(直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란 평가다. 최근 외환 노조의 반대가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김 회장 겸직 및 김한조 행장 유력설이 약화되면서 김병호 하나은행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탁월한 글로벌 감각으로 통합은행의 해외 진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1961년생으로 수장으로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다크호스'로 떠오른 인물이 함영주 하나은행 부행장이다. 그러나 최근 영업총괄임원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쟁구도서 한발 물러서 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크게 데인 KDB산업은행 기업부실 감지시스템 수술

작년부터 대우·STX조선해양 등 부실대출·분식회계 의혹에 '몸살'
재구축 통해 기업 모니터링 강화
산은 "이슈 발생전부터 예정된 일"

대우조선, STX조선 등 출자사의 부실대출과 분식회계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KDB산업은행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적출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산업은행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분식회계로 인한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신용위험 경감 방안을 확보해 여신의사 결정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7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공고했다. 재구축 비용은 총 4억9300만원 정도로 오는 9월부터 7개월간 재정비에 들어간 후 내년 4월 해당 시스템 재구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분식회계 변별력 및 분식적출 유효성이 확보돼 자산건전성이 제고되고 기업 사전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또한 분식회계 적출프로세스가 효율화돼 여신심사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심사의 질적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숨겨진 부실이 드러나면서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으로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대우조선은 그동안 실적에 반영하지 않은 손실이 수조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 영업손실도 3조원 이상 불어나면서 회계부실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STX그룹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거액의 대출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STX조선의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재무이상치가 높게 추출됐지만, 산업은행은 신규대출 및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2700억원까지 여신액을 늘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시스템 재구축과 거래 기업의 이슈는 별개라고 일축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이 전 은행을 대상으로 분식적출 회계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라며 "시스템 재구축은 이슈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예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달에도 업종 특성을 반영해 재무등급을 산출하는 '기업신용평가시스템' 재개발 공고를 냈다. 당시에도 대우조선의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해 부인하며 "금감원의 요구 때문"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은퇴설계하는 이광구 우리은행장



우리은행이 새로운 은퇴설계 브랜드 '웰리치(We'll Rich) 100'을 출시했다. 웰리치100은 기존에 예적금 중심으로 구성한 은퇴브랜드인 '청춘100세'를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은행의 모든 은퇴관련 상품과 서비스 브랜드로 사용된다. 우리은행은 브랜드 출범과 함께 웰리치100 패키지를 출시했다. 웰리치100 패키지는 은퇴와 관련해 통장·예금·적금·펀드·보험·신탁·카드를 망라한 상품으로 은퇴 이전 자산증식형과 은퇴 이후의 현금창출형 등 단계별로 상품을 선정할 수 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오른쪽)이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영업부에서 새로운 은퇴브랜드인 '웰리치 100' 출시를 기념해 직원으로부터 직접 은퇴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은행

아프로서비스, 리딩투증·솔로몬신용정보 품나

인수의향서 제출… 예보 10월 중 매각절차 마무리

러시앤캐시, OK저축은행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아프로서비스그룹이 리딩투자증권·솔로몬신용정보 인수에 나선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전날 솔로몬신용정보의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이날까지 LOI를 접수를 받고, 9월 중순 본입찰을 거쳐 9월 하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빠르면 10월 중으로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솔로몬신용정보는 신용정보·채권추심 회사로 임석전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이 규모를 키워 단기간 저축은행 1위로 도약하는 데 기반이 된 모태 회사다.

솔로몬신용정보는 한때 업계 3위까지 올랐으나 2012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과 불법대출로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당하면서 10위권으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솔로몬신용정보의 대주주는 임 전 회장에서 예보로 바뀌었다.

매각 지분은 예금보험공사와 산하기관인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지분 48.3%, 9.67%를 포함해 총 60.42%다. 나머지 지분은 국민은행(11.14%), 신한은행(7.11%), 씨티은행(5.13%) 등이 나눠 갖고 있다.

한편 아프로서비스그룹은 같은날 리딩투자증권 인수전에도 LOI를 접수했다. 리딩투자증권과 솔로몬신용정보를 인수하면 아프로서비스그룹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캐피털사에 이어 증권사, 신용정보회사까지 종합금융사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미정 기자 lmj@

아주캐피탈, 포드·링컨 전속금융사 선정
전시장서 차량비교·구입·서비스 '원스톱'

아주캐피탈은 포드·링컨 자동차를 판매하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전속 금융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포드나 링컨 관련 금융 프로모션은 아주캐피탈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아주캐피탈 오토금융부문 김원민 상무는 "국내 포드·링컨 고객들을 위해 원스톱 쇼핑 솔루션을 지원할 것"이라며 "차량 비교에서 구입, 금융서비스 선택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이 포드와 링컨을 선택하는 모든 과정을 전시장에서 편리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이윤종 아주캐피탈 대표(왼쪽)와 포드코리아 정재희 대표가 업무제휴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아주캐피탈

총수 '통큰기부' 경제활성화 마중물되나

최태원 SK 회장, 민간기업과 상생… '사회적기업' 열정
신동빈 롯데 회장, 사재 수백억 출연 사회공헌 곧 발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잇달아 대규모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면서 재계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확산은 물론,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그룹은 19일 경제발전에 이바지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층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으로 3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태원 회장이 사면·복권돼 출소하고 나서 17일 그룹 관계사 CEO들과 가진 확대경영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성과물이다.

재계는 SK그룹의 이 같은 결정으로 주거문제와 고독사 문제 등 저소득층 노인복지를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배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존경심과 감사 풍토를 조성하는 촉발제도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조차 저소득층 노인주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독거노인 급증으로 인한 고독사 등에 대한 대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 시도는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재계는 이번 지원책을 비롯해 SK그룹이 추가적은 사회공헌 활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공헌 및 사회적 기업 등은 평소 최 회장이 관련 저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를 집필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장애인 등 소외 계층과 청년들이 자립해 기업을 일구는 게 국가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0월 옥중에서 자신의 10년간 사회적 기업 활동을 정리한 저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제안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또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를 설립하고, 올해 초 청년 사회적 기업가 5명을 첫 투자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회적 기업 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던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도 수백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사회공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과 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고조된 것을 고려해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사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그룹의 사회공헌 전담기구인 롯데복지재단·롯데장학재단·롯데삼동복지재단이 아닌 정책본부 내 CSR팀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호 기자 spdran@

10대 그룹 2015년 상반기 투자 (단위:억원) ※ ■는 증감률

기업집단	유형자산	무형자산	합계	유형자산(%)	무형자산(%)	합계(%)
삼성	93,623	9,403	103,026	26.9	37.5	27.8
현대자동차	91,787	8,260	100,047	285.0	14.2	222.0
SK	50,787	3,859	54,646	10.0	45.0	12.0
LG	28,933	6,063	34,996	0.0	-7.2	0.0
롯데	11,388	335	11,723	-20.9	-23.9	-21.0
포스코	9,319	1,266	10,585	-27.2	39.6	22.8
GS	4,752	399	5,151	-9.2	22.4	-7.4
현대중공업	5,192	233	5,425	-7.4	-38.0	-9.4
한진	4,271	2	4,273	-37.0	-77.8	-37.0
한화	5,218	151	5,369	82.8	71.6	82.4
30대 그룹	**351,732**	**36,044**	**387,776**	**34.0**	**11.1**	**31.5**

30대 그룹 상반기 투자 32% 늘려

경기침체에 공격경영 눈길

국내 30대 그룹이 경기 침체에도 오히려 투자는 공격적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266개 계열사의 올 상반기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자액은 개별기준으로 38조777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1.5% 증가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9조2795억원이 늘었다.

설비 투자와 관련된 유형자산 취득액은 35조1732억원으로 8조9190억원(34.0%) 증가했고 연구개발(R&D)·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 취득액은 3조6044억원으로 3605억원(11.1%) 늘었다.

그룹별로는 30대 그룹 중 절반이 넘는 18곳의 투자가 증가했다. 무엇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투자 확대를 이끌었다.

4대 그룹의 투자는 29조2715억원으로 50.4% 늘었다. 금액으로는 9조8045억원 증가해 30대 그룹 전체 증가액을 넘어섰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완성차·철강 등 주요 계열사들의 투자가 일제히 증가하면서 투자 규모가 삼성과 맞먹는 수준까지 확대됐다.

현대차그룹의 상반기 투자는 10조4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2.0% 급증했다. 늘어난 금액만 6조8972억원을 기록해 전체 증가액의 74.0%를 차지했다.

삼성그룹은 10조3026억원으로 2조2418억원(27.8%) 증가했다. SK는 5조4646억원으로 5834억원(12.0%) 늘었고, LG는 3조4996억원으로 821억원(2.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조선·철강·정유 부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늘었다.

한화는 5369억원을 투자해 82.4%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신세계(6924억원, 14.4%), CJ(4842억원, 3.7%), 금호아시아나(3678억원, 3.9%), 영풍(3305억원, 25.6%), 두산(2171억원, 11.9%), 효성(2160억원, 4.7%), 현대백화점(2081억원, 78.6%) 등이 2000억원 넘는 투자를 진행했다.

장효진 기자 js62@

현대車, 실적부진 中 임원 쇄신인사

상반기 판매량 작년보다 5.8% 감소
전략담당·총경리 등 경영진 물갈이

현대자동차가 부진한 중국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문의 경영진을 물갈이하는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현대차는 18일 사천현대기차 담도굉 판매담당 부사장을 중국전략담당으로, 현대위아 이병호 부사장을 북경현대기차 총경리로 각각 임명했다. 또 기아자동차 기획실장 김견 부사장은 둥펑위에다기아 총경리로 임명했다.

현대기아차 중국사업의 기존 경영진은 일선에서 물러났다. 베이징현대기차 김태윤 총경리는 베이징현대 4, 5공장 건설 담당 상근자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둥펑위에다기아 총경리를 맡았던 소남영 부사장은 자문에 위촉됐다.

국내에서 현대차 중국전략담당을 맡았던 최성기 사장 역시 고문으로 물러났다.

현대기아차가 중국사업 부문의 쇄신 인사를 단행한 것은 실적 부진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량은 81만3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다. 연 초에는 월 16만대 가량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했지만 최근에는 월 9만대


담도굉 전략담당 이병호 총경리 김견 총경리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현대기아차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현지 업체의 거센 공세와 중국시장의 침체로 부진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중국 시장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차량 가격을 최대 900만원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일부에서는 현대기아차가 현재 건설하고 있는 4, 5공장이 준공 이후 가동률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중국사업 부문 전반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는 한편,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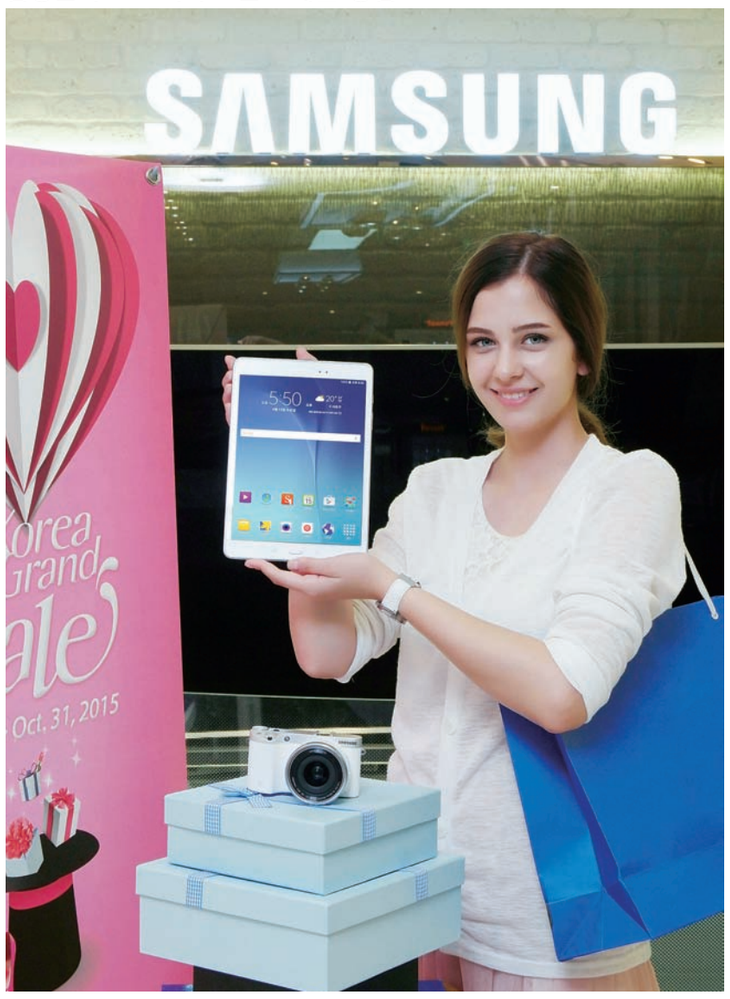


SKT, 사전체험 행사


LGU+, LTE비디오포털 서비스


KT, 사전체험 행사

삼성전자도 '코리아 그랜드 세일' 동참



삼성전자가 지난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위축된 관광 수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정부 주도 행사로, 삼성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과 전국 20여개 시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배터리팩·핸디청소기 등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삼성 TV 점유율 28.5% 10년연속 세계 1위 눈앞

삼성전자가 10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세계 TV 시장에서 매출액과 판매량 기준 점유율이 모두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IHS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2분기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1.4%포인트 오른 28.5%, 같은 기간 판매량 기준 점유율은 1.1%포인트 증가한 21.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UHD TV와 커브드 TV 역시 매출액 기준 각각 36.4%, 80.7%를 기록, 주요 TV 카테고리에서도 1위 자리를 고수하며 프리미엄 TV 시장을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세계 TV 출하량이 약 4800만대로 1분기 대비 189만대가 줄어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SUHD TV에 힘입어 초고화질 UHD TV와 최상의 몰입감을 구현하는 커브드 TV 판매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 2월 나노 크리스털이라는 새로운 소재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기술, 독자 개발한 화질 기술을 적용한 SUHD TV를 한국에서 첫 출시한 삼성전자는 7월 초 'JS7200'을 세계 시장에 선보이며 SUHD TV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된 UHD TV 중 3대 중 1대 이상이 삼성전자 TV인 셈이다.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올해 2분기 세계 TV 시장에서 초고화질 UHD TV 판매가 1분기 대비 50% 이상 늘고, 특히 커브드 TV가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에 기인한다"며 "10년 연속 세계 1위를 목표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경차 1위 탈환" 스파크

쉐보레, 6년만에 신형 모델 출시… 모닝에 도전장

국내 경차 1위 타이틀을 놓고 스파크와 모닝의 경쟁이 뜨겁다. 쉐보레는 6년만에 신형 스파크를 출시해 공격적인 판촉전에 나선 반면, 모닝은 스포츠 모델 론칭과 할인폭을 늘려 맞불작전에 나섰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과 기아자동차가 경차 1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국지엠은 신형 모델인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를 앞세워 당장 이달 경차 1위 탈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파크가 이달 모닝을 제치고 경차 1위에 오르면 2007년 12월 이후 8년만이다.

지난달 경차 1위는 7349대를 판매한 기아차의 모닝이 차지했다. 쉐보레 스파크는 2995대에 그쳐 2위에 머물렀다.

한국지엠 측은 이달부터 신형 스파크 판매에 돌입했다.

신형 스파크는 6년만에 완전변경(풀체인지) 한 모델로 가격을 낮추고 최첨단 기능을 탑재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7월 부터 사전 계약을 받은 신형 스파크의 계약대수가 6000대를 넘어섰다"며 "신형 스파크의 판매량이 공식적으로 잡히는 8월부터 모닝의 판매량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자신했다.

실제로 한국지엠은 신형 스파크 8월 판매 한달 전인 7월부터 사전계약을 받는 등 공격적인 판촉에 나섰다.

기아차도 신형 트림 출시와 할인 폭 확대로 맞불작전에 나섰다. 기아차는 강인한 이미지로 디자인을 바꾼 '모닝 스포츠' 모델을 지난 10일 출시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갤노트5·S6엣지+, 미리 써보고 결정하세요"

이통3사 '버선발 마케팅' 후끈

이동통신사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달아 오르고 있다. 출시 이전부터 체험행사를 진행한데 이어 특화된 마케팅 전략까지 세워 초반 주도권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오는 20일 출격하는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에 맞춰 본격적인 마케팅 경쟁에 돌입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에 기능을 추가한 삼성페이에 맞춘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갤럭시노트5와 S6엣지+를 구매한 뒤 삼성페이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급속 무선충전기나 클리어 뷰커버를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이벤트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삼성페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13만편이 넘는 동양상 콘텐츠를 갖춘 'LTE비디오포털'를 마케팅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갤럭시노트5와 S6엣지+의 신규 출시를 기념해 오는 25일까지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LTE비디오포털 서비스 2만원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T 역시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를 활용한 고객 잡기에 나선다.

KT 관계자는 "갤럭시노트5와 S6엣지+의 출시를 앞두고 다양한 마케팅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시점에 맞춰 본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통사들은 출시 사흘전부터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를 체험하는 행사를 갖고 마케팅 경쟁에 나선 상태다.

양창균 기자 yangck@

유한양행 '블록버스터 5형제' 상반기 매출 1위자리 지켰다

지난해 제약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달성한 유한양행이 올 상반기에도 매출 1위 기업 자리를 지켰다. 이같은 실적 호조는 매출 1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5개나 배출하면서 처방약 부문이 선전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회사의 올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140억2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05억6100만원으로 21.6%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555억7800만원으로 15.4% 증가했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약품사업부문 매출이 3786억7500만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73.7%를 차지했다. 생활사업부문은 413억원으로 8.0%, 해외사업부문은 847억1700만원으로 16.5%의 비중이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약품사업부문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도 여전히 어려운 시기가 지속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의 성장을 실현했다"면서 "시장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인효 기자 kangih@

요즈마그룹, 판교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

이스라엘 벤처캐피털인 요즈마그룹이 올해 12월 경기도 판교 창조경제밸리센터에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요즈마 스타트업 캠퍼스'를 개소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최양희 장관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 그룹 회장과 면담을 갖고 '요즈마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와 운영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요즈마 그룹에 따르면 요즈마 스타트업 캠퍼스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육성한다. 또한 미래부의 사물인터넷·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해 기업별 특성화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요즈마그룹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교류기회도 지원할 계획이다.

요즈마 스타트업 캠퍼스는 미국과 영국의 세계적인 투자기관들이 창업 초기기업의 투자와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국내외 테스트베드 확보를 통한 기업의 레퍼런스 확보 지원 △이커머스(e-Commerce)를 이용한 유통망 확보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과자 안먹어요…취향따라 골라먹는 '말린 간식' 즐겨요

맛 좋고 몸에 좋은 '웰빙 군것질' 인기

망고·파인애플 등 건조과일 판매 급증
다양한 건과일·건채소·생과일칩 내놔
오리·연어·장어 등 이색 육포도 출시

직장인 김수하(25)씨는 최근 동료 여직원들과 인터넷을 통해 오리 육포, 고구마말랭이, 파인애플 칩 등 각종 '말린 간식'을 주문했다. 습관처럼 즐겨 먹던 과자를 대신해 가볍게 즐기기 좋고, 몸에 더 좋다고 생각해서다. 부피가 작아 자리를 크게 차지하지 않고, 장기 보관도 가능해 한 번 구입 시 동료들과 함께 대량으로 구입해 두곤 한다.

최근 '말린 간식'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저칼로리 웰빙 먹거리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다. 19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건조 과일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가량 상승했다.

또한 G마켓이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조사한 결과 건(乾) 망고와 건 파인애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다.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육포 시장의 경우에도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일반화하고 있어 건강함과 간편성을 갖춘 '말린 간식'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식품 업체들도 차별화된 '말린 간식'을 잇따라 선보이며 소비자 마음잡기에 나서고 있다.

말린 간식의 대표주자 '육포'의 경우 소·돼지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각종 육류, 어류 등을 활용한 다채로운 제품이 출시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다향오리는 지난해 100% 국내산 오리고기를 갈아서 건조시킨 '나는 오리 육포다'를 처음으로 선보인 후 인기 몰이 중이다. 칠리맛과 치즈맛 등 2종의 특제 소스가 동봉돼 있어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다.

샘표는 슈퍼 푸드로 불리는 알래스카산 연어를 사용한 연어포 '질러 깜놀 연어'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연어를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연어포'로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오메가3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고단백 영양간식이다. 한 입 크기의 스틱(stick)형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조 대림은 수산 안주류 브랜드인 '핑고(Fingo)'를 론칭하고 단백질·칼슘·뮤신 등이 풍부한 장어로 만든 '핑고 매콤장어포'를 출시했다.

기존에 건포도, 건바나나 등으로 한정됐던 '건과일', '건야채' 제품도 다양한 과일, 채소류로 확대돼 판매되고 있다. 달콤한 맛과 특유의 쫄깃한 식감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고구마말랭이는 대상 청정원 '고구마츄', 동원F&B '자연한입 고구마', CJ제일제당 '맛고구마' 등을 통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대상 청정원은 100% 제주감귤로 만든 '귤츄', 청도반시로 만든 '감츄'도 후속으로 선보였다.

보다 바삭한 식감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생 과일칩도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베이비오는 딸기와 배를 말려 만든 '바삭아삭한 과일칩'을 선보였으며, 복음자리는 최근 '자연에서 온 과일칩' 시리즈를 론칭해 감귤·사과·파인애플 맛의 생과일 칩을 판매 중이다. 이선애 기자 lsa@

무선 청소기·휴대폰·디카 충전 1분이라도 빨리…

'배터리 경쟁' 불붙은 가전업계

'1분이라도 짧게.' 최근 가전업계에 부는 배터리 충전 경쟁 바람이 거세다. 특히 다양한 국내외 무선 제품들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기존의 휴대폰 시장은 물론, 청소기, 카메라 등 일반 가전제품시장까지 배터리 충전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제품 출시가 이어진 무선 청소기 시장에선 배터리 경쟁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무선 청소기는 선없이 사용하면서도 강력한 흡입력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배터리의 중요성이 크다. 더욱이 빠른 충전도 수반돼야 해서 배터리 충전 기술은 무선 청소기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무선 청소기들의 배터리 충전 시간은 약 3~5시간이 걸리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 진공청소기업체 후버는 국내에 시판되는 브랜드 중 최단 충전 시간을 자랑하는 무선 청소기 '에어 코드리스 투인원(Air Cordless 2in1)'을 출시해 눈길을 모았다. 초경량 무선 청소기 에어 코드리스 투인원은 국내에서 가장 빠른 충전 시간인 1.5시간 만에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며, 12분짜리 배터리 2개로 최대 24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3~5시간에 달하는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만큼, 무선 청소기의 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최단 시간 충전기술을 앞세운 미국 후버의 무선 청소기 '에어코드리스'와 '에어코드리스 투인원'. 사진제공 후버

배터리가 중요한 휴대폰 분야에서도 충전 경쟁이 치열하다. 삼성전자는 무선 충전 장치가 내장된 갤럭시S6에 이어, 최근 더욱 향상된 무선 충전 기능을 갖춘 갤럭시S6 엣지 플러스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무선 충전 패드를 사용하면 120분 만에 완충이 가능하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S6 엣지의 충전 시간인 180분에 비해 60분이나 줄어든 수치다.

디지털카메라 분야에서도 충전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기존엔 대다수 카메라가 탈착식으로만 배터리 충전이 가능했지만, 최근엔 USB 충전까지 가능한 제품도 출시됐다. 소니코리아가 지난달 출시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7RII'다. 기존 시장에서 흔치 않았던 USB 충전과 동시 촬영 지원으로 장시간 외부에서 충전없이 촬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점차 가전제품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옮겨가면서 제품 성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배터리 충전 기술은 속도 경쟁이 붙은 가전시장에서 무엇보다 기술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한 요소여서 업체들 역시 이 같은 방향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파라다이스그룹이 2017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인 국내 최초 글로벌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조감도.

"'황금알' 카지노 복합리조트 지역안배를"

"지역균등 개발·관광활성화" 목소리 커져
수도권 2곳 이상땐 공급과잉 공멸 우려도

외국인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지역 안배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선정해야 할 2곳의 사업자 중 수도권 1곳, 지방 1곳으로 나눠야 애초 목표한 사업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콘셉트제안요청(RFC)을 실시한 결과 국내외 34개 기업이 대거 신청했다. 이 중 16개사가 인천(영종도)을 사업지로 제시했다. '카지노를 모아 놓아야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정부가 은연 중에 '집적효과'를 내세우고 있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해졌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엄청난 경제효과 때문에 복합리조트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지자체들은 정부가 수도권 몰아주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내걸었던 균등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라는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2곳 이상을 몰아줄 경우 탈락한 지자체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2곳 이상의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공급과잉으로 카지노 업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영종도에 이미 진입이 확정된 파라다이스시티와 LOCZ는 4조원 가량을 투자했다. 2017년 이후 2곳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려면 연간 87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인천 카지노 1곳 매출액(1086억원)의 8배, 수도권 4개 외국인전용 카지노 전체 매출액의 약 8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이익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희대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원석 교수는 "공급과잉·투자과잉으로 경쟁력을 잃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냉철한 수요·공급 분석과 중국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카지노 전담 관리·감독 기구 설치, 관련 법규 정비 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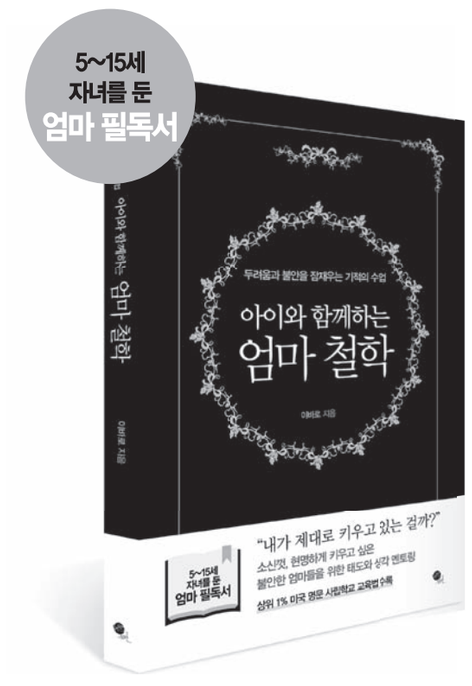
카지노의 주고객인 외국인 관광객 수에 따른 카지노 추가 설립 규모에 대한 학계의 연구 결과도 지방에 신규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복합리조트 성공적 도입 방안' 세미나에서 박성용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0년까지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 수를 추산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확정된 5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서울 3개소, 인천 2개소)를 제외한 1곳의 추가 설립이 적정하다"며 "정부가 추진 예정인 복합리조트의 2개소 추가설립 시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1곳은 지방에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스마트폰에서 〈QR코드리더〉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선택한 단 하나의 베스트셀러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는 기적의 수업



보스턴 컬리지 출신 철학자
이바로 지음 | 312쪽 | 13,000원

아이와 함께하는
엄마 철학

좋은 대학은 보내야 하고, 남들 하는 만큼은
다 시켜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걸까?"

불안한 엄마들을 위한 태도와 생각 멘토링!

무한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신청

대출연체만 1조…회생 '좁은문'

르네상스호텔 매각 실패로 채권 회수 난항
대주단 협약 중단…4년만에 다시 법정관리
작년 영업손실 523억 경영정상화 불투명

삼부토건이 경영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건설사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잇단 대출원리금 연체로 타격을 입은 상황이어서 경영정상화가 이뤄질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부토건은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 건설사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회사 재산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도 했다.

그동안 삼부토건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이 회사는 최근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의 주요 사유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점이 꼽혔기 때문이다. 이 건설사는 또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9443억 6879만원, 3190억원의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밝혀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타격도 입었다.

이때부터 삼부토건은 자산유동성에 문제점을 드러내며 법정관리 위기에 처했다. 채권단이 자율재무구조개선 협약시기(자율협약)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 9443억여원은 자가자본의 246.1%에 해당했다. 이로 인해 지난 10일 개장 직후 바로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당시 삼부토건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9차 대주단 자율협의회에서 채권행사 유예기간 변경 등의 안건이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담보자산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 등을 대주단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연체된 자금은 4년 전 지원받은 것이다. 삼부토건은 2011년 법정관리 위기에 놓이면서 회사 채권단이 그해 4월 삼부토건에 신규자금 7500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하면서 법정관리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당초 자율협약 만료일은 지난 6월까지였지만 부동산개발회사인 엠디엠(MDM)과의 르네상스호텔 매각협상으로 이달 초까지 연기된 상태였다. 그러나 약 3년 간을 끌어온 르네상스호텔 매각이 계속해서 무산되면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결국 자율협약을 종료키로 한 것으로 분석됐다.

3190억원의 대출원리금이 연체됐을 당시에도 삼부토건 측은 "자산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 등을 대주단과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잇단 대출원리금 연체 소식에 주가는 이틀 연속 급락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이 무산되면 삼부토건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앞서 예상한 바 있다.

앞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삼부토건의 경영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삼부토건은 연체금액만 1조원에 가깝다. 또한 실적도 좋지 않다. 이 회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523억5092만원으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확대됐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 증가한 6051억여원, 당기순손실은 2831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한화·SK건설, 흑시나? '역시나'

비상장 건설사 2분기 실적 발표

해외 사업 원가 상승 영업익 타격
한화 1분기 만에 599억 적자 반전
SK는 50억 전년보다 88.6% 급감
현대ENG 2049억·포스코 889억
각각 67%·72%↑… 영업흑자 선방

국내 주택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는 중에도 대부분의 상장건설사들의 실적은 기대치를 밑돌았다. 이는 비상장 대형 건설사들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실적이 건설사별로 큰 온도차를 보였다.

18일 비상장 대형건설사들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실적이 현대엔지니어링은 양호한 반면 SK건설과 한화건설은 큰 폭으로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성적표를 받은 곳은 한화건설이다. 한화건설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599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손실 역시 475억원을 기록했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2분기에 422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1분기 흑자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2분기 다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화건설 관계자는 "2분기 실적의 경우 준공이 임박한 해외사업장들의 원가가 상승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면서 "가장 큰 사업장 중 하나인 이라크 현장이 폭염이 심해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것도 영업이익 축소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비상장 건설사 2분기 실적 (단위: 원)

❶ 매출액 ❷ 영업이익 ❸ 당기순이익

※ 진회색은 적자폭 감소 수치



		2015년 2분기	2014년 2분기	증감률
포스코	❶	2조2263억	2조4256억	-8.2%
	❷	889억	516억	72.3%
	❸	260억	51억	409.8%
롯데건설	❶	1조8211억	2조1222억	-14.2%
	❷	793억	780억	1.7%
	❸	115억	122억	-5.7%
SK건설	❶	2조1479억	2조203억	6.3%
	❷	50억	438억	-88.6%
	❸	47억	434억	-89.2%
현대엔지니어링	❶	1조9248억	1조4939억	28.8%
	❷	2049억	1227억	67.0%
	❸	697억	805억	-13.4%
한화건설	❶	7212억	6692억	7.8%
	❷	-599억	-4224억	-85.8%
	❸	-475억	-3731억	-87.3%

SK건설 역시 좀처럼 실적이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SK건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5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기록한 438억원에 비해 88.6%나 급락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4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9.2%나 빠졌다. 하지만 매출은 오히려 2조14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SK건설 관계자는 "사우디 와싯 가스플랜트 프로젝트가 9월 준공을 앞두고 준공 일정을 맞추려고 돌관공사 하다보니 비용이 추가가 돼서 원가가 올랐다"면서 "이 사업이 원래 원가율이 높은 프로젝트였는데 사업지연되고 준공일정 맞추려다 보니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영업이익만 그렇고 당기순이익은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SK건설은 지난해 상반기 195억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673억원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롯데건설은 올해 2분기 79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지난해 780억원에 비해 1.7% 증가세를 보이며 선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스코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업계가 악재에 부진한 속에서도 개선세를 보였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88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72.3% 상승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260억원으로 409.8%나 급등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뒷걸음질 쳤지만 당기순이익은 크게 올랐다.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올해 2분기 20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6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 1조9248억원으로 28.8% 올랐는데 당기순이익만 697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구성헌·정경진 기자 carlove@

'광주' 뜨거운 분양가

7월 민간아파트 평균 864만원 0.18%↑
0.47% 오르며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7월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월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 분석한 결과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864만3000원으로 전월대비 0.18%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2% 상승한 수치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는 총 7개 시·도 지역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월대비 상승했다. 7개 지역은 보합, 3개 지역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6대 광역시와 지방은 전월대비 각각 0.47%, 0.53%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1.21%,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3㎡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광주로 2.65% 상승했다. 전북지역이 2.25%, 경북이 2.15%로 뒤를 이었다.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충북으로 1.22% 하락했다. 서울(1.21%), 경기(0.52%)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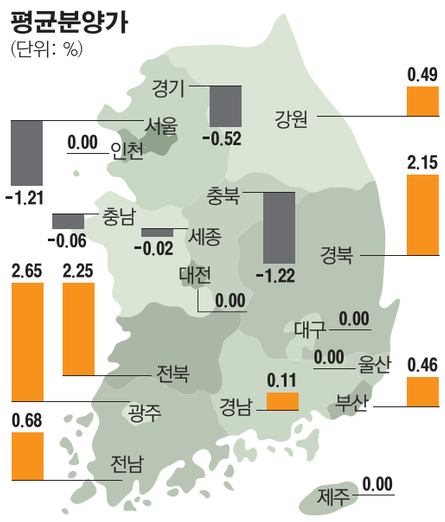
7월 전국에서 신규 분양한 민간아파트는 2만926가구로 전달(4만4996가구)보다 2만4070가구가 줄었고 작년 7월(7696가구)에 비해서는 1만3230가구 늘었다.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 수는 작년 7월보다 241%가량 늘어난 1만3368가구로 지난달 전국 분양물량의 63.9%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4434가구, 5대 광역시에서는 2761가구가 분양됐다.

정경진 기자 jungkj@

평균분양가
(단위: %)



호반·중흥·양우·대방 '중견 빅4', 호남서 분양대전

1만1827가구중 7532가구…대형사의 3배
양우 '나주'·중흥 '순천' 등 1천가구 대단지



'나주 남평 강변도시 양우내안愛 리버시티' 조감도.

올 하반기 호남지역 분양시장은 대형 건설사가 아닌 양우건설·중흥건설 등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이 주도할 전망이다. 특히 나주에서는 양우건설이, 순천에서는 중흥건설이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랜드마크급 대단지를 조성하는 가운데 전주에서는 대형 건설사와 중소건설사들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호남지역에 분양예정인 민간 아파트 물량은 11개 건설사, 7개 단지의 1만1827가구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대형업체로 꼽히는 현대, 대우, GS건설 3사의 분양예정 물량은 전주와 군산에 3개 단지, 2342가구 정도다. 반면 양우·중흥·호반·대방 등 4대 중견 건설사 공급물량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7532가구로 조사됐다.

우선 양우건설은 남평 강변도시 내 마련된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B1~B3) 중 B2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블록을 확보하고 여기에 1700여 가구 규모의 랜드마크급 대단지를 건설한다는 복안이다. '나주 남평 강변도시 양우내안愛 리버시티 1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23층 구조로 8개 동이 지어질 예정이다.

순천에서는 오는 11월 중흥건설이 신대배후단지 B2-1블록에 공급하는 1426가구 규모의 중흥S-클래스를 내놓고 전주에서는 골드클래스 건설이 만성지구 B3블록에 공급하는 1070가구 규모의 '전주 만성지구 골드클래스'가 눈에 띈다.

이 밖에 목포에서는 중흥건설이 목포 대불산업단지 4블록에 1375가구, 군산에서는 대우건설이 조촌동 일원에 '군산 디오션시티 푸르지오' 1400가구를 오는 10월 분양한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자동차업계 "대세는 親디아" '크로스오버 SUV'로 급가속

印 1위 마루티 스즈키, 프리미엄급 'S-cross' 선보여
현대차·포드·르노 등 新모델 일제 출시 경쟁 불붙어
2020년 세계 3위 부상 전망… 업계 럭셔리 시장 눈길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경기 둔화에 허덕이는 중국 대신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장점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SUV 고급화에 승부를 걸었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인도 1위 자동차업체 마루티 스즈키는 이달 출시하는 신형 크로스오버 SUV 'S-cross'의 성공을 위해 온갖 공을 들이고 있다. 회사는 'S-cross' 판매를 전담하게 될 고급 하이테크 쇼룸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쇼룸에서 제품 소개와 계약 모두 애플 디스플레이 기기 등으로 이뤄지게 된다. 호텔과 항공사, 금융서비스업체 등 고객과 접할 기회가 많은 업체들로부터 판매 인력도 모집했다.

인도 시장 2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포드와 르노 등 글로벌 업체들도 이미 지난달 일제히 크로스오버 SUV를 내놓는 등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에 불이 붙은 상태다.

마루티 스즈키는 'S-cross' 가격을 67만5000~137만 루피(약 1221만~2478만원)로 책정했다. 이는 현대차와 비슷한 가격이다. 마루티 스즈키와 현대차 등 인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두 업체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WSJ는 평가했다.

앞서 마루티는 키자시 세단과 그랜드 비타라 SUV 등 고급 모델을 선보였으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반면 현대차는 쏘나타와 산타페로 고급차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는 세계 6위 승용차 시장이며 오는 2020년에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지에서 크로스오버 SUV는 2011년 이후 연간 25%씩 성장했으나 최근에는 신모델 부재로 성장이 정체됐다. 그러나 마루티와 현대 등이 잇따라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다시 성장세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크로스오버 SUV는 세단에 비해 실내 공간이 넓고 차고가 높아 많은 세계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라케시 스리바스타바 현대차 인도법인 판매·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인도에서 크로스오버 SUV 판매 비중은 아직 4%에 불과하다"며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도에서 지난해 팔린 260만대 차량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세단이며 그 중 대부분은 마루티와 현대, 타타자동차가 생산한 소형 해치백 모델이다. 그러나 업계는 수익성이 높은 새 제품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스리바스타바 부사장은 "현대와 마루티는 인도 전역에 광대한 딜러망이 있어 크로스오버 SUV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는 지난달 새 SUV를 출시하고 나서 29일 만에 3만3000대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의 이전 월간 소형 SUV 판매량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아닐 샤르마 IHS오토모티브 애널리스트는 "오는 2018년까지 인도시장에서 14종의 새 SUV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며 "마루티와 현대, 마힌드라&마힌드라가 시장 경쟁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국제유가 배럴당 15달러까지 떨어진다"

원유 과잉 공급 심화 지속
중국發 경기둔화에 수요↓

국제유가(WTI 기준)가 배럴당 최저 15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6년여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바닥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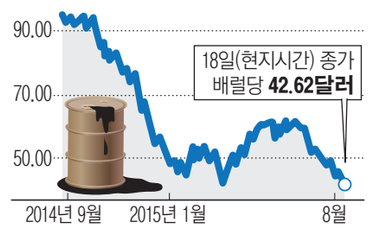
미국 CNN머니는 18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달러까지 추락할 것이라며 1999년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1.8% 오른 배럴당 42.62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서 반토막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유가의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미국 투자전문가인 컴버랜드어드바이저의 데이비드 코톡 회장은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유가의 바닥은 알 수 없으며 (국제유가가)배럴당 15~2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장에선 유가를 반등시킬 요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CNN머니는 "유가가 배럴당 15달러선으로 떨어지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며 "휘발유가 갤런당(1갤런=3.79ℓ) 1달러에 판매되던 1999년 초 이래 이처럼 저가에 거래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WTI 가격 추이
※출처: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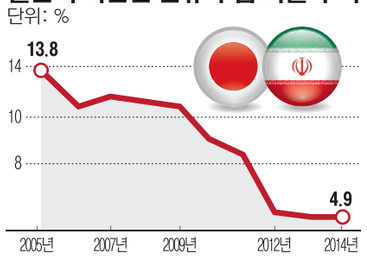
시장 내 과잉 공급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이란 등 주유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늘리는 가운데 원유 수요는 그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CNN머니는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며 "특히 원유시장의 최대 소비자로 불리는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가 가장 큰 타격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에너지 붐이 지난 10년간 과잉 공급을 자초했고,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OPEC의 감산 거부가 공급 과잉 현상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유 과잉 공급이 유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도 OPEC은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산유량을 늘리고 있다. 지난달 OPEC 12개 회원국의 하루 평균 산유량은 3150만 배럴로 전월 대비 10만700배럴 증가했다. 이는 2012년 4월 이후 3년 만의 최대 수준이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일본의 이란산 원유 수입 비율 추이
단위: %



日, 이란과 손잡는다

유전 등 자원개발권 선점 목적
투자협정 실무단 물밑작업 나서

일본이 핵협상 타결로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가 임박한 이란과의 투자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경 미국·유럽으로부터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곧바로 이란과 투자 협정 교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무단을 꾸려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아마기와 다이시로 일본 경제산업차관은 지난 8~10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비잔 남다르 잔가네 석유장관 등을 만나 제재 해제에 대비한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미쓰비시상사와 미쓰이물산, 이토추상사 등 5대 상사와 대형은행 등 21개사 관계자가 동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일본이 이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2010년 대이란 경제 제재로 포기한 중동 최대 규모의 유전인 이란 남서부 아자데간 유전개발권 등 자원 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일본의 이란산 원유 수입 비율은 4.9%로 급격히 줄었다. 일본은 이를 제재 이전 수준인 10% 이상으로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이란 측은 일본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금융제도 정비에 일본이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가로 원유 수출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란은 원유 매장량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위의 자원부국이다.

일본 정부의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대이란 제재 해제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대이란 제재 해제를 거부할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발동할 심산이지만 소비재 등의 수출 규제 해제를 우선시해 의회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에너지 분야의 제재 해제는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실적 부진에 '좀도둑'까지 기승

골머리 앓는 '유통공룡' 월마트

'부진의 늪'에 빠진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좀도둑 기승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월마트는 회계연도 2분기(5~7월) 실적을 공개하며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회사는 내년 1월 말 종료되는 2015년 회계연도의 연간 주당 순이익(EPS)을 4.70~5.05달러에서 4.40~4.7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월마트의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은 미국 내 임금 인상 조치와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달러 강세로 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 2분기 월마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1202억 달러(약 142조 7254억원)로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조정 EPS는 1.08달러로 시장 전망치 1.12달러를 밑돌았다.

블룸버그는 "현재 월마트를 괴롭히는 건 부진한 실적, 남는 재고가 아닌 '좀도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전국소매협회(NRF)에 따르면 2014년 유통업체들이 전체 매출의 1.4%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는 자사 직원에 의한 도난 때문에 발생한 손해이고, 38%가 외부 좀도둑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은 좀도둑 때문에 발생한 월마트의 물질적 피해는 연 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좀도둑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소비자들이 매장을 나서기 전에 영수증과 구매한 물건을 확인하는 등 도난 방지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GM '뷰익', 中서 만들어 美에 판다

美업체 첫 시도… 中 경기둔화 대안

제너럴모터스(GM)가 미국 자동차업체 중 처음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자국에 들여올 전망이다.

GM은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뷰익 인비전(Buick Envision)'을 오는 2016년 말 미국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USA투데이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뷰익 브랜드는 미국보다 중국에서 훨씬 큰 인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GM은 자국보다 중국에서 뷰익 차량을 더 많이 생산하고 판매한다.

현재 글로벌 주요 자동차업체 중에선 볼보만이 중국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볼보는 중국 자동차업체 지리의 자회사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이날 GM의 이런 계획을 강하게 성토했다. GM과의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신디 에스트라다 UAW 부위원장은 "미국 납세자와 근로자들의 희생에 힘입어 GM은 현재 이익을 내고 품질도 좋은 회사가 됐다"며 "인비전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다는 소식은 UAW 회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GM '뷰익 인비전'. 출처 GM 웹사이트

GM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미국 금융전문매체 CNN머니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GM이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 경기둔화에 대안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GM을 포함한 세계 자동차업체들은 중국 시장의 성장성에 베팅해 현지 생산용량을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생산분의 대부분을 소화하던 중국의 경기가 둔화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현재 GM은 중국에서 매년 뷰익 인비전을 12만6000대 판매하고 있으나 미국시장에선 아직 판매하지 않고 있다. IHS오토모티브는 계획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2017년 인비전을 약 3만8000대 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뉴욕 타임스스퀘어 '토플리스 여성' 규제한다는데…


미국 뉴욕의 번화가인 타임스스퀘어 앞에서 18일(현지시간) 거의 나체에 보디 페인팅을 한 여성들이 구경꾼에 둘러싸여 관광객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토플리스(topless) 여성'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혔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뉴욕 거리에서 나체로 다닌 것이 범죄도 아니고 이들 여성의 일할 권리도 존중한다. 하지만 시민들 역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타임스스퀘어를 지나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에서는 반라의 차림으로 관광객과 기념사진을 찍고 돈을 받는 '토플리스 여성'이 급증해 논란이 돼 왔다.
뉴욕/AP연합뉴스

명품업계 "日기업 라이선스 계약, 이제 그만"

최근 버버리·셀린느·구찌·입생로랑 등 계약 종료 잇달아
이질적 제품 양산에 브랜드 손상… 이미지 회복 움직임

글로벌 명품업체들이 '너무나 흔해서' 추락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일본 현지 기업과의 제조·판매 라이선스 계약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영국 명품업체인 버버리는 지난 45년간 일본 산요상회와 맺었던 제조·판매 라이선스를 최근 종료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버버리가 그동안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과도한 노출로 고급스러운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판단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버버리는 세계 2위 명품시장인 일본 시장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버버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고경영자(CEO)인 파스칼 페리는 "라이선스 계약 탓에 과도한 노출이 지속돼 제품 이미지에 금이 갔다"고 지적했다.

버버리 외에 프랑스의 '셀린느' '입생로랑', 이탈리아의 '구찌' 등 다른 글로벌 명품업체들도 최근 일본 기업과 맺은 판매 라이선스 계약을 중단했다.

명품업체들은 해외 현지의 노하우와 유통망이 없어 1980년대부터 주요 시장인 일본 기업과의 판매·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발판을 구축했다. 일본 기업들은 해당 계약을 통해 제품 매출의 2~10% 로열티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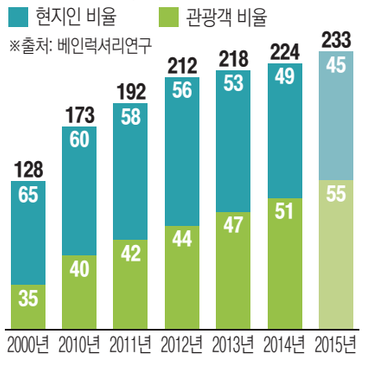
그러나 라이선스를 얻은 현지(일본)기업들에 개발 자유권까지 부여됨에 따라 명성에 의존하는 명품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는 현실이 됐다.

일본 기업들은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는 야구모자, 애견용품, 위스키 등 이질적인 제품을 마구잡이로 생산했다. WSJ는 "최근 몇 년간 일본 백화점에선 입생로랑, 셀린느의 손수건, 핸드타올 등 각 업체의 콜렉션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이 단돈 10달러에 판매됐었다"고 설명했다.

입생로랑은 지난 3년간 자사 콜렉션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이 판매돼 최근 일본 현지 기업과의 계약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입생로랑 제품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는데 현지 기업의 제품 생산은 이를 방해한다"며 계약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 또는 해외 여행을 통해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명품업계에 이미지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글로벌 명품 매출 추이
단위: 10억 유로, %, 2015년은 추정치
■ 현지인 비율 ■ 관광객 비율
※출처: 베인럭셔리연구



컨설팅업체 샌포드C번스타인의 마리오 오르텔리 애널리스트는 "세계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향상되면서 이미지 회복에 집중한 명품업체들이 속속 라이선스 계약을 중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명품 매출은 전체 매출의 5%에 불과하나 연 20%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 올해 전체 명품 구매자 가운데 55%가 해외 관광객으로 추산됐다. 이는 5년 전의 40%에서 확대된 것이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법률상담… 24시간 언제나 물어보세요"

대형로펌 나와 창업한 30대 변호사들
영화 예매하듯 상담 예약 '헬프미' 운영


변호사 상담 실시간 예약서비스 '헬프미' 운영진이 6일 소호사무실에 딸린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남기룡 변호사, 박효연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지방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창업을 준비하던 중 법률 자문을 구할 곳이 필요했다. 사업 아이템이 현행 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었지만, 막상 찾아간 지역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무장을 만나는 시간이 길었고 변호사와 제대로 된 상담을 하는 시간은 짧았다. '자문 용역'을 맡기려면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물론이었다.

변호사 수는 늘어났지만, 막상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한 정보를 문의할 수요자에게 변호사 사무실 문턱은 여전히 높다. 법조계가 생소한 사업가에게는 어떤 변호사가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알기도 쉽지 않다.

30대 젊은 변호사들이 지난달 '법률서비스 연결 플랫폼'을 표방하며 온라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주인공은 박효연(33·사법연수원 39기)·이상민(34·39기)·남기룡(36·39기) 변호사다. 박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누구나 일하고 싶어 하는 대형 로펌인 '율촌'과 '태평양'을 나와 창업에 나섰다. 남 변호사는 현대건설과 법무법인 '소헌'에서 6년간 경력을 쌓았다.

이들이 만든 '헬프미(www.help-me.kr)'의 오프라인 공간은 책상 세 개를 놓으면 꽉 차는 소호 사무실이 전부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언제든 변호사를 고르고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한 뒤 사무직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영화표를 예매하듯'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들이 추구하는 서비스 형태다.

"법률서비스가 고도화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변호사 상담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있지 않아요. 소송까지 가지 않는 의뢰인이면 상담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변호사 2만명 시대예요. 법률서비스 시장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어요."

헬프미가 기존 로펌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고용 변호사가 없다는 점이다. 지금은 창업멤버인 변호사 3명이 실시간 법률상담 서비스를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참여 의사를 밝힌 변호사 중 송무 경험 최소 2년 이상인 변호사들을 선별해 상담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고객들은 헬프미가 제공한 변호사 경력, 성공사례, 상담후기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법률서비스를 신청하고, 24시간 내에 예약금을 입금하면 실시간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유사 서비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헬프미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내세웠다. 박 변호사는 "실장, 부장으로 불리는 사무장들의 상담을 받으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조용병, 신입행원에 "B.E.S.T 돼 달라"

〈신한은행장〉

기흥 연수원 찾아 조언


조용병 신한은행장(왼쪽 두번째)과 신입행원들이 18일 경기도 기흥 소재 신한은행연수원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18일 경기도 기흥 연수원에서 입문연수를 받고 있는 신입행원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조용병 행장은 은행 선배로서 지난 30여년간 금융인으로 살아오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바를 허심탄회하게 전했다.

조 행장은 신입행원들에게 'B.E.S.T'를 강조했다. △우선 B는 Basic(기본)이다. 기본적인 업무 역량부터 차근차근 다지라는 조언이다. △E(Ethics·윤리)는 투철한 윤리의식으로 항상 정도(正道)를 걸으란 의미다. △S(Small·작은)는 사소한 일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며 최선을 다하란 뜻이고 △마지막으로 T(Try·노력)는 젊음과 패기로 모든 일에 과감히 도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 행장은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적극 실천해서, 열정과 감동의 따뜻한 금융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주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LG, 석·박사 인재 46년째 학업 후원

연암장학금 7억원 상당 지원



18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연암장학생 증서수여식에서 강유식(오른쪽) LG경영개발원 부회장이 부산대 교육학 석사과정 박선영씨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LG

LG가 석·박사 우수 인재들의 학업 후원을 46년째 지속하고 있다.

LG연암문화재단은 18일 여의도 LG트윈타워서 '2015 연암장학생 증서수여식'을 개최하고 이공계 30명, 인문계 21명 등 51명의 장학생들에게 총 7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학업 성적이 뛰어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을 후원하는 '연암장학생 지원사업'은 인재가 곧 국가의 미래라는 인식 하에 1970년부터 시작된 LG의 최장수 사회공헌 활동이다. 특히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이공계와 인문계를 고루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국내외의 권위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해당 연구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인재들이 주를 이뤘다.

이날 증서수여식에서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은 대학원생들에게 "학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려 결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목표에 매진하여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LG연암문화재단은 올해까지 46년간 총 2953명의 대학원생들에게 약 138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후원을 받은 장학생들은 국내외 유수의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급 학술지에 연구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지영 기자 gutjy@


18일 오후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구자학·허창수·박용만·박삼구·현정은 회장(왼쪽부터)이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구자학 "이맹희 회장, 재미없지만 마음 넓은 사람"

재계 인사, 조문 행렬
박용만·박삼구·현정은 회장 등
"안타깝다… 편히 가시길…"
삼성家 이서현도 빈소 찾아
이명희, 이틀 연속 고인 넋 기려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부부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별세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랐다.

18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명예회장의 빈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구자학 아워홈 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과 삼성 사장단 등 재계 인사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온 재계 인사 중 가장 빠른 오전 8시 20분쯤 이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았다. 그는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재현 CJ 회장과 1960년생 동갑이자 고려대 동문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은 오전 11시 15분쯤 함께 장례식장에 들어섰다.

전날 빈소를 찾은 삼성가 오너 일가에 이어 삼성전자 사장단도 조문에 나서며 CJ와 삼성 간 '화해 무드'를 암시했다.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윤주화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장례식장을 찾았다.

고인의 매제인 구자학 아워홈장도 빈소를 찾았다. 구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막내딸인 구지은 전 아워홈 부사장과 함께 조문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구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평소 술과 담배를 못해 재미가 없었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고인을 추억했다.

오후에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구자열 LS그룹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이 고인의 빈소를 찾았다. 전날 해외 출장 때문에 조문을 못했던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도 저녁에 빈소에 들렀으며,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이틀 연속 빈소에 들러 고인의 넋을 기렸다.

상주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날 빈소를 찾지 못했다. CJ그룹 측은 "신장을 이식받은 이 회장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감염 위험이 있어 빈소에 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예회장의 장례는 별세일인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CJ그룹장(7일장)으로 치러진다. 정식 조문은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발인은 20일 오전 7시이며 영결식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다.

유지만 기자 redpill@

KB손해보험, 33번째 '희망의 집' 완공식



KB손해보험은 17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희망의 집짓기 제33호' 완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지난 17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서 허정수 부사장, 이규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회장, 백낙흥 서천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의 집 33호' 완공식을 개최했다.

'희망의 집 33호'는 충남 서천군에 살고 있는 9살 송민정·혜정(가명) 쌍둥이 자매를 위해 두 달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이날 행사는 KB손해보험 충남지역단과 민정·혜정 쌍둥이 자매 간의 자매결연 및 후원증서 전달, '희망앨범' 전달, 현판제막, 기념식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남수 노조위원장이 전달한 '희망앨범'은 KB손해보험이 SNS를 통해 응모받은 응원 메시지를 한데 엮은 것으로 1000여명의 사람들이 직접 쓴 손편지로 쌍둥이 자매의 밝은 미래를 함께 응원했다.

이미정 기자 lmj@

효성, 취약계층 여성 취업에 7000만원 지원



조현상 효성 부사장(오른쪽 두번째)이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위한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효성

효성이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위한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에 7000만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효성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2013년부터 3년째 여성가장·기초수급 대상자·탈북민·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들이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 과정은 급식조리전문가, 아이돌보미 교육이며 올해는 교육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까지 연계해 급식조리사 자격증, 방과 후 학습지도사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다. 총 200시간의 교육과정 수료 후 전담 직업상담사의 1 대 1 취업 지원을 받으며 교육과정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조남호 기자 spdran@

하나금융 "탈북 청년 취업 돕겠습니다"

'멘토링·리크루팅' 프로그램 시작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가운데)과 김병호 하나은행장(앞줄 왼쪽 세 번째), 김한조 외환은행장(오른쪽 두 번째)이 18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탈북 청년과의 멘토링 결연식을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

하나금융은 탈북 청년의 취업을 돕고자 '탈북 청년 멘토링 및 리크루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금융 임원들과 탈북 청년들이 멘토와 멘티로 만나 월 1회 이상 워크숍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나금융은 이 같은 상담과 워크숍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보인 탈북 청년들을 향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탈북 청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정진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 박정훈

◆관세청 ◇과장급 〈전입〉 △특수통관과장 유영한 〈전출〉 △외교부(주태국대사관 1등서기관) 이철재

◆충북도 ◇4급 〈승진〉 △창조전략담당관 최성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직위 승진) 임헌배 〈전보〉 △공보관 김선호 △진천군 전출(부군수 요원) 전원건 △문화예술과장 한필수

◆한국관광공사 △비서실장 정진수 △기획조정팀장 김성훈 △지역협력팀장 조홍준

부음

▲박부미자씨 별세, 정수영(고구려시스템 대표이사)·수구(렉서스 용산전시장 지점장)씨 모친상 = 17일 오후 9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 02-3010-2261

▲유정식씨 별세, 헌(사업)·창(사업)·훈(사업)씨 부친상, 이근회(사업)·이창서(애드애드 대표)씨 장인상 = 18일 오전 7시, 고대안암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 02-923-4442

▲전희원(전 경북교육연구원장)씨 별세, 전상훈(분당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상우(유창메딕스 대표)·미경·미정씨 부친상, 박창권(계명대 의대 흉부외과 교수)씨 장인상 = 18일 오전 6시, 계명대 동산의료원, 발인 21일 오전 6시, 053-250-7144

▲정석범(한국경제신문 문화전문기자)씨 별세 = 17일 오후 8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 02-3010-2233

▲채용석(전 전주고 교사)씨 별세, 채수일(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수찬(전 국회의원)·건호(엘피알코리아 상임고문)·수홍(전북대 교수)씨 부친상 = 17일 오후 2시, 전북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9시, 063-250-2450

▲이봉임씨 별세, 문순만(화백)·순환(참저축은행 부장)·영미씨 모친상, 영빈(해안건축사무소 선임)씨 조모상, 이선옥(전 경동정보대 교수)씨 시모상 = 18일 오후 1시, 대구모례아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7시, 053-801-9999

국회 경제포럼 이 혜 훈 연세대 특임교수·전 국회의원

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국민연금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와 무책임한 직무유기가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불과 2주일 만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로 오락가락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노후자금에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데도 방치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국민연금은 SK㈜와 SK C&C 합병을 반대했다. 합병비율 1대 0.73이 최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SK C&C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는 반면 SK㈜의 가치는 낮게 평가함으로써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불과 2주일 후 동일한 사안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반대로 바꿔 찬성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1대 0.35는 SK㈜와 SK C&C 합병비율보다 격차가 더 커 주식 저평가 문제가 훨씬 심각한 데도 SK 건에서는 주식 저평가 문제를 이유로 합병을 반대했던 국민연금이 삼성 건에서는 찬성했을 뿐 아니라 주총이 열리기 전에 찬성의사를 공개해 다른 주주들도 찬성표를 던지도록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문제는 합병 이후 두 회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6000억원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은 합병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도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통해 투자금을 보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손해 보면서까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명분 없이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는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태도다. 최근 형제간, 부자간에 막장 드라마 같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동안 롯데그룹의 8개 상장회사 주가는 1조5000억원이나 하락했다. 국민연금은 이들 회사에 5~13%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국민연금의 손실은 곧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이다. 대주주로서의 기본 권한을 행사해 손실 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런 일각의 요구를 경영 개입으로 오도하면서 연금사회주의의 우려가 있다고 거부했다.

첫째,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손실 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 주주의 권리이지 경영 개입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경영참여공시, 공동보유자신고, 단기매매이익반환 등이 적용되므로 곤란하다는 국민연금 측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일례로, 지난해 현대차가 한전부지를 비싸게 매입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손실 보전을 요구한 홍콩 투자자들의 요구는 경영 개입이 아니라 기본적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 요구였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상기한 제약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 6000억원 평가손을 감수하면서까지 특정인의 경영승계 작업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이 오히려 연금사회주의의 우려가 높은 사안이지, 롯데그룹 건처럼 국민의 노후자금의 손실 보전을 위해 국민연금이 기본적 책무인 손실 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연금사회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불리라고 만든 조직이다. 특정인의 황제경영을 방어하라고 만든 조직이 아니다. 주가 하락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이 우려되면 당연히 보전 대책 마련을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국민연금이 먼저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미 홍콩 등 외국 투자자들은 다 받아내는 손실 보전을 적용되지도 않는 법 핑계를 대면서 못 한다고 버티는 국민연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재벌을 위한 국민연금인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인가?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율의 정치펀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전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요새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 따라 나오는 말이 있다. 바로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는 소리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드높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역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이번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에도 어김없이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에서 이런 문제 제기의 발단은 북한의 도발이 지난 4일에 있었음에도 5일 통일부가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위한 접촉을 제의했다는 점을 정치권에서 지적하면서부터다. 사건의 일지(日誌)만 놓고 보면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꼴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의 표준시 변경에 대해서만 비판했는데, 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컨트롤 타워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통일부는 아마도 북한의 도발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에 접촉 제의를 했을 확률이 높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 부처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해야 할 컨트롤 타워는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지금 정부는 8일에서야 북한 소행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려 그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역시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정부가 인정하는 꼴이라는 생각이다.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일단 의혹이 생기면 곧바로 그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4일 사건이 터지고 5일에 북한 소행이라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 소행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의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에게 유선과 무선으로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주무부서의 장이 직접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다. 대면 보고와 유선 혹은 무선 보고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보고방식'의 문제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대면보고를 했어야 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우선 정부 각 부처 간의 소통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컨트롤 타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부처 간에 소통이라도 제대로 돼야 할 텐데,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방치하면 국가 위기사태 때 정부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발생하자마자 청와대 차원에서 나서야지, 국방부나 합참이 나서서 대책을 말할 사안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먼저 청와대가 나서서 북한에 대한 엄중 경고를 한 이후에 국방부가 세부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이번 사안 역시 해당 부처가 먼저 나서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나섰다는 점도 문제라는 얘기다.

그런데 이런 정부와 청와대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바로 얼마 전 메르스 사태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청와대는 보이지 않고 보건복지부만 우왕좌왕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청와대가 나섰다. 결국 지금 정부는 일이 터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치는 뒷북이란,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드는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 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는데, 이 기구는 지난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터져도 별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비판이 많아지면 기구 하나 만드는 식의 처방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큰 사건이 터지면 누구나 당황하고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이런 실수를 너무나도 자주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수가 잦으면 버릇이 된다. 버릇이 되기 전에 실수를 실수로 그치게 해야 한다.

하루 한생각 8월 19일

人間三樂(인간삼락) 인간이 누리는 세 가지 즐거움

인생은 잘못을 고쳐 가며 사는 것이다. 상촌(象村) 신흠(申欽·1566~1628)은 인생삼락을 이렇게 꼽았다. "문 닫고 마음에 드는 책을 읽는 것, 문 열고 마음에 맞는 손님을 맞는 것, 문을 나서 마음에 드는 경치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세 가지 즐거움이다."[閉門閱會心書 開門迎會心客 出門尋會心境 此乃人間三樂]

다산 정약용은 '유수종사기(游水鐘寺記)'에서 세 가지 즐거움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렸을 때 뛰놀던 곳에 어른이 되어 오는 것, 가난하고 궁색할 때 지나던 곳을 출세해 오는 것, 나 혼자 외롭게 찾던 곳을 마음 맞는 좋은 벗들과 어울려 오는 것." 이때 다산은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다. 진사가 된 21세 때의 글이다. 추사 김정희는 일독(一讀) 이호색(二好色) 삼음주(三飮酒)를 세 가지 즐거움이라고 했다. 책 읽고 글 쓰며 항상 배우는 선비정신, 사랑하는 이와의 변함없는 애정, 벗과 함께 어울리는 풍류를 말한 것이리라. 그의 멋진 글씨가 남아 있다.

공자가어(孔子家語) 육본(六本)편에는 또 다른 삼락이 나온다. 공자가 태산 기슭을 지나다가 비파를 들고 한없이 즐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노인 영성기(榮聲期)를 만났다. 영계기(榮啓期)라고 기록한 책도 있다. 공자가 뭐가 그리 즐거우시냐고 묻자 그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남자로 태어난 것, 이미 95세가 됐을 만큼 장수하는 것을 꼽았다.[吾得爲人一樂也 吾得爲男二樂也 吾行年九十五有矣三樂也] 공자는 그를 "스스로 여유로운 사람"[自寬人]이라고 찬탄했다.

논어 맨 앞에 나오는 삼락은 어떠한가? "배우고 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온라인 와글와글

'길고양이 급식소' 강동구의 역발상…다른 지자체도 배우시죠



서울 강동구가 진행하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지난 2013년 관내 곳곳에 가로·세로 30㎝ 크기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공급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현재 60여곳이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역발상 아이디어 좋네요. 길거리 동물들 무조건 쫓아내지 말고 보듬는 것도 방법인 듯! 우리 동네에도 길고양이 급식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쓰레기 뒤적이는 길거리 동물들. 인간 손에 버려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인간이 책임져야죠", "주민 민원 줄어들고 동물 아끼는 지자체란 이미지도 생기고, 강동구 입장에선 일석이조", "요즘 도시 곳곳이 길거리 동물로 골머리를 앓는데 새로운 시도 멋지네요. 피해 보는 주민도 줄어들고 개체 수도 어느 정도 파악되니 관리하기 쉬울 것 같아요" 등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

송형근 기자 x12xsado@

오늘의 BAE 배국남 www.baekn.com

그룹 빅스 첫 유닛 'LR' 출격

데뷔 4년차 그룹 빅스의 첫 유닛 'LR'가 출격했다. 얼마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예스24 무브홀에서는 빅스의 유닛 LR의 쇼케이스가 열렸다.

LR는 빅스에서 각각 메인보컬과 랩을 맡고 있는 레오(L)와 라비(R)로 구성된 2인조 유닛이다. 라비는 빅스 멤버 중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유닛으로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 "회사에서 '빅스 중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멤버를 모아 보자'는 취지로 유닛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LR 앨범에 수록된 음악은 모두 두 사람의 자작곡이다. 레오는 이번 앨범에 대해 "우리가 작사와 작곡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빅스의 새로운 모습도 보여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타이틀곡 '뷰티풀 라이어(Beautiful Liar)'를 작사·작곡한 라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며 "이별을 앞두고 멋지게 보내주려는 남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비는 "음악방송 1위도 욕심난다"며 "1위를 하면 게릴라 공연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LR는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각종 음악방송을 통해 '뷰티풀 라이어'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비거리로 고민 많은 골퍼님들, 대망의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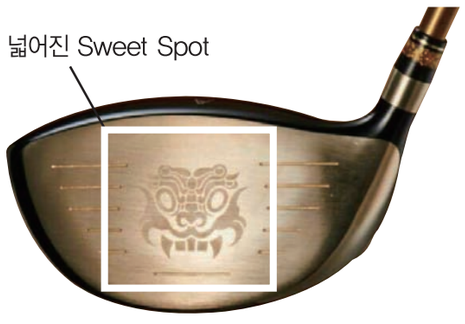
"헤드가 크다"와 "비거리" 상관관계
스윗스폿에서 1cm 벗어나면 20yard 손해 | 헤드가크면 스윗스폿이 커져서 거리와 방향유리 | 큰 헤드가 유리하므로 계속 커지고 있는 것 | 프로골퍼에게 헤드크기를 제한하는 이유도 크면 유리하기 때문.

"드라이버가 가볍다"의 의미
드라이버가 가벼우면 스윙스피드가 증가 | 몸에 무리가 안가며 부상을 방지 | 가벼워도 헤드쪽 원심력을 느끼도록 스윙웨이트를 준다 | 드라이버 무게도 계속 가벼워 지고있는 추세.

"고반발"의 의미
비거리 증가 | 짜릿한 손맛 | 런 발생 증가

"어드레스가 편하고, 믿음이 간다"의 의미
가볍고, 헤드크고, 짧게 만들어 편하다 | 자신감이 생겨 든든한다.

두배로 넓어진 스윗스팟(sweet spot)면적





"코스가 길게 느껴진다.
드라이버 비거리가 확 줄었다..."
짤순이골퍼의 아픔을 한방에 날려 드립니다.
243g 초초경량, 500cc 초대형헤드,
CT310의 초반발력의 도깨비방망이가
당신의 10년전 비거리를 찾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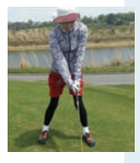
시타하신 열분 중 아홉 분 이상이
20m이상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방향성은 물론이구요.

신제품 론칭기념 20만원 할인 판매중

2015 신제품
도깨비드라이버
DGB-500
※국제특허 비틀림 방지샤프트 ※충격흡수 Winn 특수그립







유쾌, 상쾌, 통쾌한 도깨비드라이버!
힘을 주지않고 부드럽게 치는데도 비거리가 예전대비 10~20Mm는 늘어났고 왼발이 불편한 관계로 주로 손과 어깨를 사용한 스윙이라 고질적인 왼쪽 훅이 심했는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을 하는 것은 상당한 집중력과 감각을 총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편한 드라이버를 만난 저의 기쁨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큽니다. 〈최규일〉

골프 20년, 가장 맘에드는 드라이버!
과거에 T, C, X, N, K 등등 많은 드라이버를 사용해 봤는데 도깨비는 타 기종 대비 가볍고 다루기가 편하며 최소 20m이상 비거리가 증대되더군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악성훅과 스라이스가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라운드당 두세개의 OB 때문에 90대에 머물던 스코아가 요즘은 80대중반으로 도깨비드라이버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왕꼬마〉

너무나 개운하고 자랑하고 싶은 라운딩!
Golf is life! 맞는 이야기.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숨어있는 골프. 슬럼프를 이기고저 도깨비 드라이버와 인연을 시작. 설렘과 슬럼프의 두려움으로 가득. 결과는 100점 만점에 99점. 수년만에 아우디장식(파 연속4개)거의 파온에 나도 놀람의 연속. 동료들 추카추카. 슬럼프 탈출~. 도깨비덕분. 드라이버가 멀리가니 골프가 이리 쉬운걸 ^.^ 올해는 도깨비와 함께 춤을... 필드에서.... 〈이쁜이 골퍼〉

www.도깨비골프.com
문의 1899-9030

正論

연꽃 보러 감시다



안 영 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

전국 각지에서 연꽃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위치하고 있는 상주 지역의 크고 작은 연못에도 연꽃이 잔뜩 피어 있다. 모든 꽃들이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연꽃은 들여다볼수록 신비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꽃이다. 불교와 관련이 많은 꽃이라는 선입감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전혀 화려하지 않은 화색과 단순한 화형은 극도로 절제된 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의 많은 문인들이 연꽃의 아름다움을 찬양했다. 연꽃은 보기에만 아름다운 꽃이 아니다. 잎에서부터 뿌리, 종자에 이르기까지 식물체 모두가 약용 혹은 식용으로 이용되는 쓸모 있는 식물이다.

활짝 핀 연꽃은 관상용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개화하기 전의 봉오리를 따서 말린 것을 연화(蓮花)라 하며 흔히 지혈제로 이용된다. 여름철 활짝 핀 꽃의 수술은 연수(蓮鬚)라 하여 역시 귀중한 생약 중 하나이다. 잎의 생약명은 하엽(荷葉)으로 역시 생약재이지만 민간에서는 차로 마시거나 음식물을 싸서 보관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종자도 약용과 식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연꽃은 인도를 비롯해 한국, 일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널리 분포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및 남부유럽, 북아프리카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는 식물이다. 인도를 중심으로 재배 역사가 매우 긴 식물이기도 하다. 기원전 2000년경의 인도 고대 의학서적인 차라카 삼히타(Charaka samhita)에 이미 연근의 약용 가치와 복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을 정도이다. 또한 고대 인도에서는 연잎을 일상적 향신료로 사용했고 열병 환자의 온몸을 잎으로 감싸 치료하는 데 이용했다. 또한 큰 잎을 종이 대용으로 글씨를 쓰는 데 이용하거나 부채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오래된 기록에 남아 있다.

중국에 불교가 전해지기 이전에 연꽃은 이미 중국인들에게 애호됐다고 전해진다. 중국에서는 연꽃을 보통 하(荷)라고 하며 하화(荷花) 또는 연화(蓮花)라고도 한다. 중국에서 연꽃은 길상(吉祥)의 의미를 나타낸다. 정월에 한 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연꽃과 잉어가 함께 그려진 그림(蓮年有魚)이나 연꽃과 어린아이의 그림(蓮年貴子)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 또한 하나의 가지에 두 개의 꽃이 피는 연꽃을 빗대어 부부 금실을 상징하는 식물로 나타내기도 했다.

연꽃은 불교와 힌두교를 비롯한 인도 유래의 종교에서 생명의 탄생과 정토(淨土)의 세계를 상징하는 꽃이다. 인더스 문명 유적지에서 발굴되는 유물 가운데 유독 연꽃 형상의 장식물을 머리에 쓰고 있는 점토상이 많다. 당시의 연꽃은 생명의 모태가 되는 물과 대지의 생산력을 상징하는 식물이었다. 힌두교에서 3대 신의 하나인 비슈누의 배꼽에 연꽃이 피어 있고 행운과 생식의 여신 락슈미(Lakshmi)는 연꽃으로부터 탄생하였다고 힌두교 경전인 리그베다(Rgveda)에 서술돼 있다. 인당수에 몸을 던진 효녀 심청이 연꽃 속에서 환생한다는 우리나라 고전소설 속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탄생의 의미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연꽃은 아름다움과 종교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종자 수명이 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종자 껍질 자체가 워낙 견고하고 연꽃의 생태적 특성상 온도 변화가 거의 없고 습기가 많은 땅속 깊숙한 곳에 종자가 묻혀 있어 장기간의 활력 유지가 가능하다고 추측된다. 실제로 일본의 사이타마(埼玉)현 교다(行田)시에서 출토된 1400년 전의 연꽃 종자가 성공적으로 발아돼 재배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흔히 연근이라 불리는 연꽃의 지하경에는 보통 9개 전후의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이는 잎에서 빨아들인 산소를 공기가 부족한 진흙 속의 지하부까지 운반해주기 위한 구멍이다. 이것은 통기공이라 하며 수면 위로 올라와 자라는 긴 엽병을 잘라서 들여다보면 역시 아주 미세한 9개의 구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구멍은 대기와 지하부를 연결해주는 연꽃만의 독특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관광객이 급감해 지방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 아름다운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전국 각지의 연못으로 한번쯤 연꽃 관광을 해볼 것을 권해본다. 카메라에 연꽃의 풍성한 잎과 꽃을 담으며 은은한 연꽃 향기에 취해보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객석

장 원 호 세아스틸UAE 차장

여기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관전문기업 세아제강의 UAE 법인 'SeAH Steel UAE'에서 근무하는 장원호 차장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아랍에미리트 최북단에 위치한 라스 알 카이마(Ras Al Khaimah)에 있으며, 2010년 2월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느꼈던 문화적 특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문화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아랍' 하면 떠올리는 이곳의 의복 문화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랍 남성은 전통의상인 흰색 토브(Thobe), 여성은 아바야(Abaya)라는 검은색 전통의상을 착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바야를 착용한 여성을 주의 깊게 바라보거나 말을 거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전통 복장을 입은 현지인의 사진을 찍을 경우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슬람력에 따라서 매년 9월에 한 달간 라마단(이슬람 금식월)을 지냅니다. 이 기간에 이슬람 신자들은 일출에서 일몰까지 금식 및 금욕을 합니다. 그러나 해가 진 저녁시간부터 해가 뜨기 전 새벽까지는 음식을 먹는 것이 허용됩니다. 라마단의 배경에는 어려운 이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함께 나누자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크리스마스 같은 장식이 길거리에 많이 등장하고 카드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마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듯이 이들은 "라마단 카림(Ramadan Kareem·즐거운 라마단)"이라고 인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생활하며 느낀 점은 '인샬라(Inshalla)'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즈니스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이 원하신다면', '알라의 뜻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샬라의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긍정의 의미도, 부정의 의미도 아닌 이 말을 듣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이슬람의 종교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자수첩

정 다 운 자본시장부/gamja@

갈 길 못찾는 크라우드 펀딩



홍삼·녹용 진액 등으로 유명한 건강식품 회사가 있다. 1980년대에 설립돼 견고한 입지를 자랑하는 이 회사는 올 초 화장품 신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대박' 예감에 가슴이 뛴 투자자가 있겠지만 아쉽게도 대표일가가 80% 지분을 쥐고 있는 비상장사다.

그러나 곧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르겠다. 하반기에 공포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해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면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다. 30년, 아니 50년 된 기업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못할 이유는 없다.

이쯤에서 크라우드펀딩법의 도입 취지를 보면 앞의 사례가 다소 생뚱맞다. 법제처와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입법 취지는 크라우드펀딩을 창업·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유난히 취약한 국내 창업·벤처 기업환경을 고려한다면 크라우드펀딩의 첫 수혜는 7년이 넘게 운영돼온 중소기업보다는 스타트업들이 먼저 나눠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래된 중소기업이 정말 새 영역을 돌파할 기술을 가졌는지 확신할 수 있나? 한계기업이 자금모집을 위해 사기를 치는 경우 등은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가?"

한 기자의 질문에 금융위는 "사업성을 인정받는 기준 자체도 까다롭고 크라우드펀딩 진행 업체가 펀딩 성공률을 높이며 자기 네임 밸류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자연히 걸러질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 발생 시 감리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애매한 책임 떠넘기기에 펀딩 업체들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 쪽으로 쏠리게 되지 않을까. 새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뛰어들 투자자들이 기존 전문 벤처투자집단을 닮아가진 않을까.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들의 '비빌 언덕'이 좁아질까 염려된다.

장효진의 이슈通

산업1팀 팀장

국감 앞두고 바빠진 기업 대관팀



"휴가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모 대기업 대관(對官)팀 간부는 직장인들이 1년을 꼬박 기다려 떠나는 여름 휴가는 그저 다른 사람 얘기일 뿐이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기업은 모두 대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관팀의 주요 업무는 국회, 정부, 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상대하면서 해당 기업의 소통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정보 수집은 물론 로비스트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 업무입니다. 특히 맡겨진 임무는 꼭 완수하고야 만다는 각오로 움직이다 보니 '별동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언제, 어디서 일이 터질지 모르니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관팀이 유독 바빠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로 인해 소위 정치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9~10월이죠.

그런데 올해는 벌써부터 국회에 대관 업무 담당자들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번 국감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기업들이 대관팀을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 만만한 기업인들을 제물로 삼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정책 감사가 되어야 할 국정감사는 기업 감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19대 국회는 2012년 첫 국감에서 164명, 2013년엔 사상 최대인 196명의 기업인을 증인대에 세웠습니다. 2013년 당시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역대 최악의 기업 감사"라고 비판할 정도로 재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3년 국감 이후 국회 안팎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자 지난해엔 '여의도 1번지'를 찾은 기업인 수가 그나마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도로 아미타불'이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최근 여당의 원내대표가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재벌 개혁'을 부르짖으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최근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상잔'의 민낯을 드러낸 롯데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대체적이지만, 기업들은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근래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만 보더라도 무조건 기업인부터 불러내고 보려는 정치인들의 갑(甲)질이 여전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기업들은 가시방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감장에 기업인이 출석해도 제대로 된 감사는 진행되지 않기 일쑤입니다. 해명은커녕 제대로 된 발언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몇 시간 동안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사선에서 분초를 쪼개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들은 그야말로 천금과 같은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하는 꼴입니다.

각계각층에서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호통 국감', '생색내기 국감'이 재현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인기 영합적인 국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그만할 때입니다.

js62@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아픈 몸은 깨달음을 위한 좋은 도구
아프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아픔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 영성 분야 최고 권위의 노틸러 북 어워드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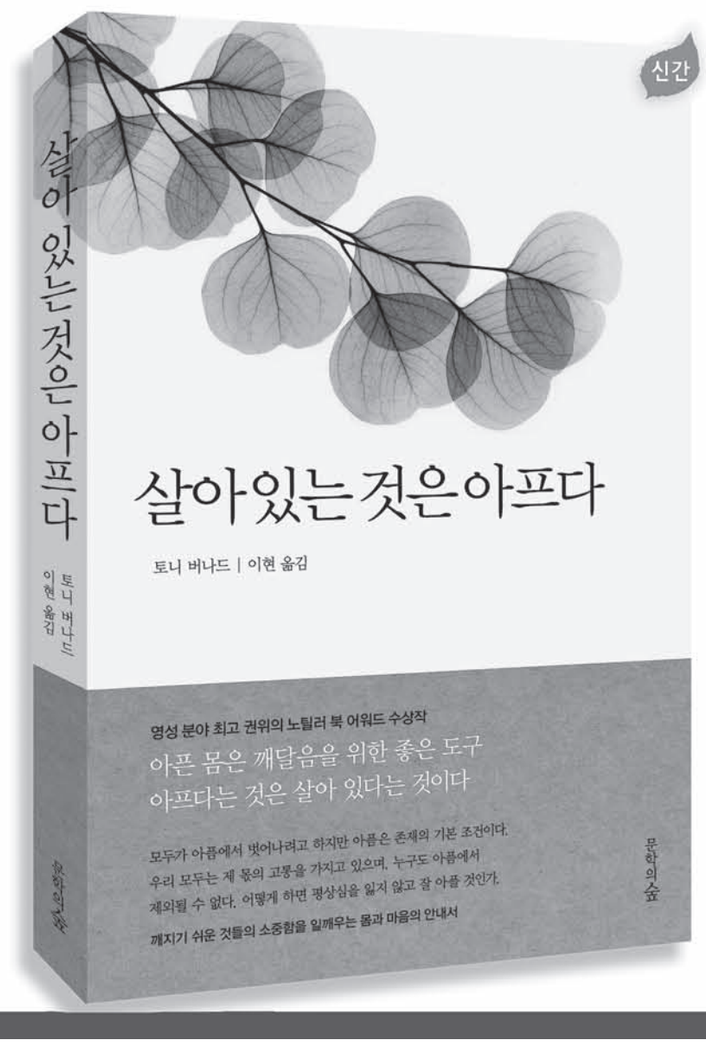
인생의 정점에서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 쓰러진 법대 교수의 감동적인 실화. 그녀는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상실은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 되었다. 영혼에 대해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똑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인생의 춤과 함께 진정으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안내서

깨지기 쉬운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몸과 마음의 안내서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 이현 옮김 | 236쪽 | 13,500원

문학의숲 당신을 닮은 좋은책 TEL 02)325-5676



소녀 5인방… 스물스물 '스타'가 되다

영화·방송계, 검증된 스타만 기용
20대 신인 여배우들 설 자리 잃어

아역 데뷔 문근영, 연기대상 홈런
박보영 '늑대소년' 흥행배우 합류
박신혜 '상속자'로 한류스타 부상
'한공주' 천우희 캐릭터 연기 으뜸
김고은 '은교'·'협녀' 넓은 스펙트럼

부침 많은 환경 속 '화려한 비상'
연기력·스타성 겸비 제몫 톡톡히

배국남의 ★타 탐험

문근영(28), 박보영(25), 박신혜(25), 천우희(28), 김고은(24). 이들 5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20대 여배우라는 점이다. 스타성과 연기력을 겸비한 여자 스타라는 점도 유사점이다.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활동하는 연기자라는 점도 비슷하다.

신인 연기자들의 배출 창구인 청소년 드라마 및 시트콤 방송, 트렌드 드라마 개화, 방송사 탤런트 공채 유지, 방송사 제작 드라마의 일정 비율 유지, 영화사의 신인 오디션을 통한 캐스팅 활성화 등으로 인해 1990년대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20대 신인 연기자가 주연을 맡아 스타로 화려한 비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한류 부상에 따른 아이돌 스타를 비롯한 한류 스타의 수요 급증, 외주 제작사가 만든 드라마의 증가, 주연 등으로 활약하거나 검증된 스타만을 기용하는 영화계와 방송계의 관행 심화 등으로 인해 20대 신인의 스타화는 점차 감소했다. 방송사는 연기력이 없어도 해외에 알려진 K-POP 스타를 주연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외주 제작사는 방송 편성을 받기 위해 엄청난 출연료를 주고 스타 연기자만을 캐스팅했다. 방송사나 영화사는 흥행파워와 연기력이 검증된 30~40대 스타를 기용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20대 신인 연기자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연으로 나서 활약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여자 연기자의 스타화는 보기 힘들어졌다.

김희선, 명세빈, 이영애, 고소영 등 수많은 20대 여자 신인들을 주연으로 내세워 스타로 만든 윤석호 PD는 "방송사가 제작을 주로 하던 시기에는 공채기수 신인이나 외부 신인들을 과감하게 주연으로 내세울 수 있었다. 드라마가 산업화되고 외주 제작비율이 높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신인을 주연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최근 들어 20대 신인 여자 연기자들이 주연으로 나서는 현상이 감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손예진, 김하늘, 전지현 등 여자 신인들을 톱스타로 만든 오종록 PD의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외주 제작사 드라마의 경우 방송사 편성을 받기 위해서는 방송사가 선호하는 스타나 한류스타를 내세워야 한다. 신인을 주연으로 내세우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인들을 기용할 수 없다. 이 같은 관행은 스타를 양성하고 작품의 스펙트럼 확장과 한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해 드라마와 영화 주연으로 제몫을 톡톡히 하는 여자 20대 스타들이 있다. 바로 문근영, 박보영, 박신혜, 천우희, 김고은이다.

아역 연기자로 출발한 문근영은 드라마 '바람의 화원'으로 21세 때인 지난 2008년 SBS 연기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최고의 연기력을 갖췄다. 여기에 대중적 인기까지 담보하며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활약하고 있다. 문근영은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캐릭터 속으로 들어가는 연기를 해 문근영이라는 연기자의 존재감과 연기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문근영은 9월 개봉하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 '사도'에 유아인이 맡은 사도세자의 부인 혜경궁 홍씨로 출연한다.

요즘 tvN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박보영 역시 20대 여자 스타 중 한 사람이다. 차태현 주연의 영화 '과속 스캔들'로 연기자로서 존재감을 알린 박보영은 송중기와 함께 주연을 맡은 영화 '늑대 소년'으로 흥행배우 스타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연기자로서 확실한 인정을 받지 못하다 요즘 방송되는 '오 나의 귀신님'에서 캐릭터를 기막히게 소화해 연기력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20대 여자 스타 중 한류 스타는 드물다. 최지우, 송혜교, 이영애 등 1세대 한류스타를 잇은 여자 스타는 거의 없다. 배용준, 장동건, 이병헌, 원빈, 송승헌, 권상우 등 1세대 한류스타를 잇는 2세대 남자 한류스타는 많다. 중화권에서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이민호, 김수현 그리고 일본에서 배용준 인기를 능가하는 장근석 등이 있다.

20대 여자 스타 중 최고의 한류스타 그것도 중국과 일본 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는 유일한 여자 스타는 박신혜다. 박신혜는 '미남이시네요'를 통해 일본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이민호와 함께 출연한 '상속자들'을 통해 중국에서 가장 인기 높은 여자 한류스타로 부상했다. 박신혜는 밝은 캐릭터를 소화하는 최고의 연기자다. 최근 출연한 드라마 '피노키오'와 영화 '상의원'에서 박신혜는 진가를 확연히 드러냈다. 20일 개봉하는 영화 '뷰티 인사이드'에도 출연해 관객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20대 여자 연기자 중 강렬한 캐릭터 연기를 가장 잘 소화하는 연기자를 꼽으라면 '한공주'의 천우희가 첫 손가락이다. '한공주' 관객들이 영화가 끝난 뒤 이름조차 생소했던 천우희를 향해 기립박수를 치는 장면이 많이 목격됐다. 뛰어난 연기력이다. 천우희는 그런 배우다. 그래서 관객들이 신인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35회 청룡영화상에서 주연상 수상을 당연하게 여겼다. 강렬한 연기력의 포스를 자랑하는 천우희가 관객과 만나는 류승룡 주연의 '손님'과 20일 개봉하는 한효주 주연의 '뷰티 인사이드'에 우진 역으로 출연한다. 천우희의 어제보다 오늘의 진화를 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대 여자 연기자 중 연기력과 캐릭터 소화력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연기자는 단연 김고은이다. 13일 개봉한 '협녀, 칼의 기억'에서 이병헌, 전도연과 함께 주연으로 나선 김고은은 베테랑 선배 연기자들과 뛰어난 연기 조화를 이뤄 찬사를 받고 있다. 2012년 영화 '은교'의 주연을 맡아 연기자로 데뷔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파격적 노출로 화제를 일으켰고 출중한 연기로 대종상, 청룡상 등 주요 영화상에서 신인상을 모두 휩쓸었다. 이후 김혜수와 주연으로 나섰던 '차이나타운' 등에서 선이 강렬한 캐릭터를 맡아 "역시 김고은"이라는 관객들의 인정을 받았다. 김고은은 이윤정 PD 연출의 tvN 드라마 '치즈 인더 트랩'에 주연으로 발탁돼 안방극장의 시청자와도 만난다. 김고은이 드라마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낸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knbae@



그래픽 신미영 기자 win8226@



배국남의 X파일

발연기 접은 '용팔이'… 주원, 이 정도였어?

2010년 '제빵왕 김탁구'로 안방 데뷔
과장되고 부자연스러운 연기로 혹평
주말극 '오작교 형제들' 이후 일취월장
'굿닥터' '용팔이'로 믿고보는 배우로

"주원의 연기는 딱딱한 고체 같아 부자연스러움의 극치다. 연기의 세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성격을 드러내는 표정에서부터 액션은 과장돼 있다."

2010년 방송된 '제빵왕 김탁구'를 통해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 드라마 연기자로 첫선을 보인 주원. '제빵왕 김탁구'가 방송될 때 그의 연기에 대해 기자는 이렇게 비판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신인은 연기를 좀 못 해도 봐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기자는 생각이 다르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에는 신인상 부문이 없다. 왜냐하면 스크린에 나선 순간 관객은 신인이냐 아니냐를 감안해서 보지 않고 모두 프로 연기자라고 생각하고 평가한다. 연기하는 순간 연기자는 중견이든 신인이든 관객의 냉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다. 신인이냐 중견이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캐릭터 소화력과 연기력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주원은 드라마 데뷔작에선 연기력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이때 든 생각이 바로 두 가지다. 고소영처럼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연기를 못 하는 스타들이 부지기수다. 데뷔작에서 보였던 문제점을 보완해 일취월장하면서 연기력을 갖춘 배우로 성장하는 연기자도 적지 않다. 주원은 어디에 속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후자다. 요즘 주원이 주연으로 나서 수목드라마 시청률 1위를 견인하고 있는 SBS '용팔이' 한 회분만 봐도 주원이 어떤 배우인지 금세 알 수 있다.

'용팔이'는 장소 불문·환자 불문 고액의 돈만 준다면 조폭도 마다하지 않는 최고 실력의 돌팔이 외과의사 용팔이가 병원에 잠들어 있는 재벌 상속녀 '잠자는 숲속의 마녀'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멜로 드라마다. 주원은 이 드라마에서 용팔이 태현 역을 맡아 감정 연기와 외형이 두드러진 연기를 오가며 캐릭터의 진정성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주원이 이 정도였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불과 5년 만에 발연기하는 탤런트에서 연기파 배우로 평가의 전환이 이뤄진 이유는 무엇이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빵왕 김탁구' 출연 당시 주원은 "연기력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기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절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조금씩 나아지는 연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주원은 그 말을 실천으로 옮겼다.

주원의 연기력이 일취월장한 결정적 원동력은 바로 주말극 출연이었다. 주원의 소속사 심엔터테인먼트 심정운 대표는 "저는 소속 연기자, 특히 신인들을 호흡이 긴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중견 연기자들이 많이 출연하는 주말극이나 일일극에 투입해 6개월에서 1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연기력을 키우고, 연기자로서의 태도도 배우게 합니다"라고 말했다.

'제빵왕 김탁구' 이후 출연한 드라마가 바로 2011년 시청률 50%대를 기록한 KBS 주말극 '오작교 형제들'이다. 이 주말극을 하면서 주원의 연기는 정교해졌고 감정과 연기가 따로 놀던 것이 감정이 실린 연기로 변해 갔다. 동료 배우들과의 연기 조화도 한층 좋아졌다. 무엇보다 연기자로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 '오작교 형제들'부터 주원의 연기력 논란은 사라졌고 이후 드라마 '7급공무원' '각시탈' '굿닥터' '내일도 칸타빌레'와 영화 '패션왕' 등에 출연하면서 캐릭터나 연기력의 스펙트럼을 더욱 확장시켰다.

연기파 배우 주원을 만든 것은 바로 호흡이 길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주말극 '오작교 형제들' 출연이었다는 것이 소속사 대표의 진단이다. 물론 연기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주원의 성실성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지만.



연극"대박포차"에 이은 이광섭 · 홍순목의 프로젝트 2탄

대박극장

대학로 최초 시네마틱 개극(개그+연극)

2015년 07월 04일 – 12월 31일 | 대학로 달빛극장

화~목요일 1회 (20시), 금요일 2회 (17시, 20시)토요일 3회 (14시, 17시, 20시), 일요일 2회 (15시, 18시) 매주 월요일 휴관

이광섭 | 홍순목 | 성현주 | 김진만 | 조진희 | 안상훈 | 이호원

기획 · 연출 이광섭 홍순목 | 무대감독 임민 | 주최 더원씨앤씨코리아 (주) | 주관 · 제작 (주) 컬쳐마케팅컴퍼니

예매 인터파크 옥션 YES24 | 단체 구매 및 문의 02-867-9503 | 후원

THE HAIR STUDIO DESIGN CREATIVE · Re:NK 리엔케이 (잠원센터) · Sauce Chicken Cafe (대학로점) · S-CANDLE HANDMADE



'해운대 아이파크' 423㎡형 거실.

해운대 아이파크에서 바라본 광안대교.

밖에서 보면 거대한 돛… 안에 있으면 구름 위 걷는 듯

부자들의 집 ❻ 해운대 아이파크

몇 년 만에 부산을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혀를 내두르곤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산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해운대는 '천지개벽'이란 말이 모자를 정도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선두에는 해운대 아이파크(I'PARK)가 있다. 이 298m에 달하는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데 지상 72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118㎡(35평형)~423㎡(128평형) 3개동 1631가구와 상업시설 2개동 등 총 5개동으로 구성되는 복합용도 개발단지다.

수영만에서 송정리 해수욕장에 이르는 수려한 해안과 장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데다 해운대 해수욕장, 동백섬, 오륙도, 요트마리나센터 등 해양레저 관광단지들이 인접하는 등 세계적인 휴양지에 버금가는 입지를 갖추고 있어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631가구 3개동·상업시설 2개동
지상 72층… 최고높이 298m 달해
세계적 건축가 대니엘 리베스킨트
글로벌 설계사 합작 디자인 차별화
욕실·식당 창밖으로 탁 트인 바다
탁월한 입지에 뛰어난 조망권 자랑

◇세계적 설계자와 글로벌 회사들의 합작품=현대산업개발은 해운대 아이파크의 입지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 대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와 손잡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였다.

대니엘 리베스킨트는 다윗의 별이 쪼개진 모양인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을 비롯해 대영전쟁박물관 등 세계적인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로 특히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WTC) 재건축 설계공모에서 당선돼 명성을 높인 바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동 아이파크 타워의 회화적 설계를 통해 국내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총괄 마스터플래너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해운대 아이파크 설계와 해운대 마린시티(수영만매립지)의 도시디자인을 자문한 공을 인정받아 부산 해운대구로부터 해운대 명예구민증을 받기도 했다.

그밖에도 세계적인 설계사들이 '해운대 I'PARK'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 구조설계에는 홍콩 IFC 국제금융센터빌딩 등의 구조설계를 맡은 ARUP사가, 기전설계는 요코하마 랜드마크 빌딩 등의 설계에 참여한 바 있는 SYSKA HENNESSY GROUP 등이 참여했고 인테리어에는 뉴욕 포시즌 호텔을 비롯해 특급호텔 인테리어부분에서 모던한 럭셔리 컨셉의 인테리어로 유명한 피터 레미디오스(Peter Remedios)가 423㎡ 펜트하우스의 인테리어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때문에 118㎡(35평형)부터 423㎡(128평형)까지의 모든 평면설계 역시 건축물의 형태를 살려 독특하고 개성있는 199개의 평면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인테리어는 현대산업개발의 디자인 철학인 도시적 모던·심플로 상징화된 I'PARK 스타일이 강화됐다. 뉴욕 맨하탄 등 도심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선호되는 내추럴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디자인된 실내공간에는 투명소재나 거울 등 반사소재를 활용해 내부공간의 확장성과 외부조망의 실내유입을 최대화했으며 무빙월 및 슬라이딩 도어 등 컨버터블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자유자재로 공간의 변화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각각의 평면들은 여유로운 공간구성과 더불어 위치에 따라 평면을 특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평범하게 다뤄졌던 식당과 욕실에 바다 조망을 끌어들였으며 일부세대의 경우 욕실을 세대 바깥쪽에 배치해 외부조망과 자연채광이 최대한 유입되도록 해 낮과 밤으로 변하는 경치를 바라보면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디럭스한 휴식 공간으로 설계했고 식당 또한 외부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공간으로 설계했다.

◇One Stop Living이 가능한 복합용도개발 단지='해운대 I'PARK'의 주상복합아파트는 66층 높이의 타워1, 72층 높이의 타워2, 46층 높이의 타워3 등 3개동으로 구성되며 각종 편의시설과 더불어 단지 내에 각각 3층과 9층 높이의 상업시설 2개동 등 총 5개동 등으로 구성된다. 복합용도개발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단지 안에서 주거, 업무, 쇼핑 등 모든 생활이 가능한 One Stop Living의 생활편의성이 제공되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입주자들의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해 2층 높이에 단지내 보행가로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단지 특화가 이뤄진다. 편의시설로는 입주민들이 '해운대 I'PARK'의 조망을 한껏 즐길 수 있도록 타워1, 타워2에는 각각 50층에, 타워3에는 30층에 휘트니스센터와 스카이라운지 등이 조성된다.

아울러 타워1에는 건강과 오락을 콘셉트로 건강회복실, 자가검진실, 가족운동실, 멀티룸 등이 조성되며 타워2에는 교육과 문화를 컨셉으로 아동문고, 독서실, 아이파크 카페, 노인 및 어린이 복지시설 등과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조성된다. 그밖에도 타워3에는 연회·사교를 콘셉트로 선셋파티가든과 게스트하우스, 회의실 등이 조성되는 등 편의시설도 각각의 타워 콘셉트에 따라 특화했다.

아울러 '해운대 I'PARK'는 마리나 요트장과 인접해 있어 해양 레저시설의 사용이 편리하며 수영만을 따라 조성될 계획인 해안도로,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명품거리 등 단지 인근 개발도 예정돼 있어 '해운대 I'PARK'의 생활 편의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구성헌 기자 carlove@

'광안더샵' 경쟁률 379 대 1 釜山 부동산 핫플레이스

해운대자이2차·사직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2차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3곳이 부산
해운대리조트 사업 등 호재 주택가격 더 오를듯

지난 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사그라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비수기로 분류되는 휴가철임에도 견본주택들은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특히 그 중심에는 부산광역시를 빼 놓을 수 없다. 이는 실제 수치로 드러난다. 올해 최고 청약경쟁률 기록을 부산이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수영구 광안동에서 공급된 '부산광안더샵'은 평균 379 대 1로 전국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2위 역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지난 6월 공급된 '해운대자이2차'로 363.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동래구 사직동에서 5월 분양에 나섰던 '사직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2차'가 143.7 대 1을 기록하는 등 전국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가운데 3개 단지가 부산에서 나왔다.

하반기 부산에서 첫 분양에 나섰던 '대연 파크 푸르지오'는 지난 달 실시한 청약접수 결과 평균 119.63 대 1, 최고 1646 대 1을 기록하며 하반기 청약시장 전망을 더욱 밝게 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부산광역시 1순위 청약경쟁률은 62.1 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 5.3 대 1, 지난해 경쟁률 20.4 대 1을 크게 넘어선 기록이다.

특히 부산은 일부 단지에서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나타나는 단지별 양극화 현상도 없이 대부분 분양단지에서 청약자들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산은 총 21개 단지가 공급에 나섰고 모든 단지가 순위 내 청약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 무려 18개 단지가 청약통장을 써야 하는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상반기 분양열기가 뜨거웠던 대구와 광주 1순위 마감 단지가 각각 13곳, 11곳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산의 청약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해운대구는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바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몇 년사이 '천지개벽' 했다.

정부가 전국 685만동의 건축물을 분석한 결과(2013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높이 기준) 1~4위가 있을 정도다. 현재는 지난해 7월 완공된 동북아무역센터가 가장 높은 건물이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해운대 마린시티 내 두산위브더제니스 101동(80층)으로 높이가 299.9m에 이른다. 두 번째는 두산위브더제니스 102동(75층), 3위는 해운대 아이파크 주동2(72층)이다.

신흥 부촌으로 바뀐 해운대(마린시티)에 전국 69개의 초고층 건축물 중 36.2%인 25개가 밀집돼 있다. 때문에 이들 지역은 중국이나 일본들의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외국인 거주 인원이 약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달 부산 해운대의 최대 민간개발사업으로 알려진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지역 주택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이란 전망 역시 이어지고 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비정형 독특한 외관, 시민들 "고급 호텔 같다" 시선 고정

우리 회사 최고 건축물

6 GS건설, 싱가포르 종합병원 '응텡퐁'



GS건설이 싱가포르에 건설해 지난 6월 개원한 옹텡퐁 종합병원 투시도. 사진제공 GS건설

고급호텔을 연상케 하는 최첨단·최신식 힐링 병원이 싱가포르에 들어선다. GS건설이 시공한 싱가포르 응텡퐁(Ng Teng Fong) 종합병원 프로젝트는 연면적 23만380㎡(7만1876평)에 총 1100병상 규모로 지하 2층~지상 16층(최고층) 규모의 병원 건물 3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현지에서 가장 많은 1500병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종합병원과 탄톡셍 병원이 오랜 기간의 증축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1100병상을 갖춘 응텡퐁 병원은 단일공사로는 싱가포르 최대 병원 프로젝트라고 GS건설은 설명했다.

선풍기 팬 모양 차양 만들기까지
태양 각도·방향 1년에 걸쳐 연구
물리학·ICT·건축기술 등 총망라
축구장 7.5배 넓이 연면적 23만㎡
35개월간 하루 최대 3500명 투입
단일 병원 공사론 싱가포르 최대

이 건설사가 지난 2012년 5월 약 6000억원에 단독으로 수주한 이 프로젝트는 병원건축의 국제 표준 적용을 바탕으로 최신 병원설계와 의료기술 트렌드, 그리고 랜드마크적인 건물 가치까지 반영함으로써, 병원 시설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파일 및 지반공사 완료 후 축구장 7.5배에 달하는 5만3843㎡(1만6316평)의 대규모 현장에 골조공사 시, 한달 평균 레미콘 차량 2000대 물량인 약 1만2000㎥ 가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마감공사 시, 하루 최대 약 3500명의 인원을 투입하는 등 현장 직원 모두 35개월간의 긴 사투 끝에 올해 초 완공해 6월 30일 개원했다.

◇"고급 호텔 아니었나요?" 기존 병원외관 탈피 = 올해 초 응텡퐁 종합병원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건물 외관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급호텔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종합병원은 주변도로를 따라 병원 한 바퀴를 걸어 보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입면에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독특한 외관을 갖추고 있는데, 미국기업 HOK에서 기본 디자인을 완성하고 호주의 Studio 505에서 입면 디자인을 진행했다. 병원은 유선형(Streamlined) 및 선풍기 팬(Fan Shape) 모양의 독특한 평면 설계로 기존 병원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실 배치와 공간 계획을 선보이고 있다.

환자 침대마다 배치된 창문 밖 외부로 돌출된 조경 공간(Planter Box)이 제공돼 환자들이 푸른 녹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정형 건물 곳곳에 조경 화단을 배치해 환자들의 자연치유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비정형 곡선으로 형성된 건물외관은 골조 공사뿐만 아니라 커튼 월 외관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도 극복해야 할 점들이 많았다. 특히 각 병실 창문 밖에 돌출된 조경 공간은 양방향 곡선으로 이뤄져 있어 설계사가 요구하는 형상을 맞추기 위해 도면 검토 및 강제 거푸집 제작 시 3D 모델링 기법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을 사용해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또한 커튼월 패널 설치 전에 정확한 골조현황을 파악해 시공하기 위해 3D 레이저 스캐닝 기법도 활용해 첨단 기술을 총 동원한 정밀 시공으로 완성했다.

◇채광과 환기 최적화한 디자인과 강화된 구조설계도 선봬 = 독특한 디자인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태양의 각도와 방향을 1년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나오게 됐다. 환자들의 치유에 초점을 맞춰 병실의 향과 최적의 일광(Day Light)을 위한 설계 콘셉트로 결정한 것이다. 선풍기 팬 모양의 유선형 차양(Light Shelf)은 병실로 침입하는 태양광을 1차적으로 차단해주고 각 창문의 수평 루버(Jalousie Window)의 각도 조정을 통해 아침 및 저녁 낮게 들어오는 태양광으로부터의 2차 보호를, 마지막으로 각 병실 밖에 외부로 돌출된 조경 화단의 녹색식물이 눈부심을 최소화한 자연채광을 각각의 병상까지 유입하고 있다.

또한 유선형 병동에서는 자연공기 흐름에 의한 환기효과(Natural Ventilation)를 유도하기 위해 병실을 공기가 유입되는 구간으로 일면으로 넓게 배치하고 반대 복도 측의 면적은 줄여서 베르누이의 정리와 같이 넓은 공간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발생한 압력 차로 풍속이 증가해, 쾌적하고 시원한 병실 환경을 조성했다.

응텡퐁 종합병원은 비정형 건물의 부드러운 외관과 달리, 전시 혹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를 대비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구조체도 강화된 설계 기준(PHM, Protective Hardening Measure)을 따르고 있다. 전시 및 비상시 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고도의 방호 시설도 갖추고 있으며, 특별히 강화된 콘크리트 구조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방폭 밸브 및 방폭 문 등도 설치 돼 있다.

◇환자중심·통합운영·모듈화·스마트그린 기술 등 주목 = 이 병원은 △환자중심(Patients-Oriented) △통합(Integration) △모듈화(Modularization) △스마트그린 기술(Smart Green Technology) 등 4가지 키워드로 만들어졌다.

응텡퐁 병원에는 환자중심과 통합 운영이 설계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이 집중치료실(intensive care unit)과 준중환자실(High Dependency Unit)로 구분돼 있지만, 이 병원은 싱가포르 최초로 두 기능을 모두 갖춘 중환자실을 계획해 한 장소에서 한 팀에 의해 중환자가 편안하게 이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실 업무흐름을 단순화했으며 건물 3개동 중 하나인 워드 타워(Ward Tower)의 1층 응급실 공간계획을 환자등급에 따라 구획하고 각종 검사실을 인접 배치해 응급환자가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병원의 실·공간 배치는 특정 사이즈의 모듈에 맞춰져 있어서 미래 수요 변경에 따른 실 변경 대응이 용이하다.

이 외에도 접근성(Accessibility)에서는 지하철 역사 및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과 각 건물로 바로 이어지는 통로들을 만들어 외부인의 방문을 편리하게 했다. 또 환자 등급별로 동선을 분리시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했고, 최근 국내에서 유행한 메르스 같은 감염사고(Infection Control Measure)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현장 아는 만큼 관리할 수 있다, 배웠죠"

박광호 싱가포르 응텡퐁 현장소장
잦은 설계변경 복잡한 병원공사
수평적 조직 운영으로 신속 대응



"응텡퐁 공사는 GS건설 해외건축 사업의 초석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 응텡퐁 현장소장인 박광호〈사진〉 GS건설 상무는 현지에서 최대규모 병원을 짓는 프로젝트에 착수했을 당시 기대와 두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해외건축 사업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상무는 "오랜기간 싱가포르 현지에서 활동해 온 쟁쟁한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건축분야에서는 현지 경험이 전무한 당사가 싱가포르 최고의 건축 공공 공사 2건 (퓨저노폴리스와 응텡퐁 프로젝트)을 연이어 수주했을 때, 주로 국내프로젝트를 수행하던 건축사업본부에서 응텡퐁 프로젝트가 해외사업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자부심으로 공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지 숙련공을 구하기 어렵고 각종 규제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축구장 7.5개 규모의 큰 현장을 짧은 기간에 수행해야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발주처 요구도 많았고 건물 형상도 특이해 어떻게 시공을 할지 고민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돌이켜보니 당시 느꼈던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지난 3년 동안 지니고 살았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박 상무는 시공을 맡으면서 특별히 새롭게 시도해 본 것에 대해 '수평적 조직 운영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꼽았다.

그는 "비정형 곡선으로 이뤄진 건물의 외관형상은 골조 공사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잦은 설계변경과 복잡한 병원공사라는 점들 때문에 확인, 관리해야 할 구간들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현장 이슈사항을 계약부터 설계, 시공까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팀의 경계를 허물고 조직을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현장에 대해 "현장은 자신이 아는 만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정의했다. 박 상무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손님을 모셔다 주기로 한 택시기사라고 할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출발부터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다. 이는 택시기사의 머리 속에서 판단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가장 효율적인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삼성물산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

올해 첫 강남권 재건축 분양 단지



삼성물산은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1-1번지 일대 서초 우성2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올해 첫 분양되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 고급 주택 수요자들의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일대의 서초 우성 1~3차에 이어지는 재건축 단지로 향후 2300가구 내외의 래미안 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인기가 높다.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는 지하2층~지상32층, 5개동, 전용면적 59~134㎡, 593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 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84~134㎡, 148가구가 일반분양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지역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서초 우성 3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에 이은 분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9월 분양했던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1.62대 1에 달하며 계약도 일주일 내에 모두 완료됐다.

우수한 학군과 편의시설 또한 이 아파트의 자랑이다. 강남 8학군 지역으로 서이초, 서울교대부속초, 서운중, 서일중, 서초고, 은광여고, 양재고 등 우수학군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강남세브란스병원, 카톨릭성모병원, 양재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등 편의시설도 가깝다.

견본주택은 오는 9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 내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2017년 12월 예정이다.

구성헌 기자 carlove@

대림산업 e편한세상 도화

중산층 대상 기업형 임대주택 1호



대림산업이 짓는 국내 1호 뉴스테이 아파트 'e편한세상 도화'가 오는 28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인천도시공사가 조성 중인 도화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인 데다 판상형의 4베이(Bay) 위주로 설계되며 'e편한세상' 브랜드로 짓는 만큼 특화설계를 비롯, 보육, 교육 등 최상의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대림산업은 강조했다.

이 아파트는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사업 5블록(뉴스테이 932가구)과 6-1블록(뉴스테이 1173가구), 6-2블록(공공임대 548가구)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2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6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올해 초 중산층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보인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최대 8년(2년 단위 갱신)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하로 제한해 주거 안정성도 높였다. 주택소유 유무, 소득 제한,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의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편한세상 도화'는 전용면적 59㎡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43만원, 72㎡ 보증금 6000만원에 월 임대료 48만원, 84㎡는 보증금 6500만원에 월 임대료 55만원 수준이다.

박태진 기자 tjpippo@

가을 성수기 임박

올해 분양시장은 '뜨겁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달아올랐다. 때문에 분양시장에서 전통적인 비수기로 분류되는 여름철 휴가시즌에도 견본주택에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실제로 광복절 연휴 사흘간 수도권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1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다. 이들 단지들은 입지가 워낙 탁월한 데다 특화설계 평면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실수요자와 외지 투자자까지 함께 몰렸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신규분양시장이 본격적인 가을 성수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하면서 돌아온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



SK건설 대연 SK 뷰 힐스

최대 54㎡까지 실속형 서비스 면적



SK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 '대연 SK VIEW Hills'를 분양하고 있다. 대연7구역을 재개발하는 '대연 SK VIEW Hills'는 지하4층~지상26층의 아파트 994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120가구, 임대60가구 등 규모로 공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대연동은 1만 7000여가구 규모의 재개발 타운으로 개발되고 있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과 인접하고 대연동 재개발타운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이 탁월하다. 대연초·중·고와 남천중·예문여고 등의 학군이 갖춰져 있다. 이외에 단지에서 번영로와 수영로, 황령대로를 통해 부산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광안대교와 경부고속도로, 남해 제2고속도로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다.

'대연 SK VIEW Hills'는 전용면적이 59㎡부터 111㎡까지 설계됐다. 특히 주택형에 따라 최대 약 54㎡의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는 실속형 설계가 눈길을 끈다. 이곳은 주부를 위한 맘스데스크를 비롯해 공부방, 가족실, 드레스룸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전등·가스밸브 차단 기능이 있는 일괄소등스위치, 지하주차장 비상벨 등이 설치된다.

분양가는 아파트의 경우 3.3㎡당 1085만 원대이며 도시형생활주택은 3.3㎡당 812만 원대다. 입주는 2018년 8월 예정이며 모델하우스는 부산 수영구 수영동 517번지에 마련돼 있다.

정경진 기자 jungkj@

현대산업개발 고덕숲 아이파크

65만㎡ 공원에 싸인 숲속 아파트



서울권에서 65만㎡ 공원에 감싸인 숲속 아파트 단지가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동구 상일동 164 일대 고덕 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숲 아이파크'를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약 65만㎡(약 20만평) 규모의 명일근린공원이 단지 남북을 감싸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해 말 이후 처음으로 강동구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 데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단지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향후 지하철 9호선 4단계 구간 신설로 9호선 환승역인 고덕역이 개통되면 강남권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1㎞이내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학교를 비롯해 한영중·고·외고 등의 학군이 자리잡고 있다.

단지는 지하3층~지상25층 13개동으로 전용면적 59~108㎡ 총 687가구이다. 이 중 2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중 90%가 84㎡이하 중소형 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일반분양 가구가 5층 이상으로 배정돼 중·고층 가구 당첨 확률이 높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940만 원대로 책정됐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2번 출구에서 50m 거리에 있는 '아이파크 갤러리'에 마련돼 있다.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수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26일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은 9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17년 11월 예정이다.

정경진 기자 jungkj@

신영 위례 지웰 푸르지오

총 784실 규모 주거형 오피스텔



위례신도시에 올해 마지막 주거형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신영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위례 지웰 푸르지오'가 21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위례신도시 업무시설용지 26블록에 들어서는 이 오피스텔은 지하 2층~최고 33층, 7개동 총 784실의 규모로, 전용면적 68㎡ 8실, 74㎡ 86실, 84㎡ 690실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8년 3월 예정이다.

'위례 지웰 푸르지오'는 동부간선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경부·중부고속도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강남까지 접근도 용이하다. 또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우남역(2018년 개통 예정)을 연결하는 위례선(트램)과 삼성역까지 5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는 위례~신사선도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는 이마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대형 골프연습장이 위치해 있다. 단지 뒤편에는 장지천 수변공원도 인접해 있다.

평면은 아파트와 유사하게 설계됐다. 84A타입(515실)의 경우 방 3개와 거실을 전면으로 배치한 4베이(Bay)로 적용했으며, 주방의 경우 'ㄷ'자 배치로 주부의 동선을 최소화했고, 주방 팬트리를 마련해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고성능 난연 단열재를 적용해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30㎜ 두께의 층간소음재를 사용하기도 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신규물량 장전 끝

↘ 해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에 24만273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훈풍을 타고 19만여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왔던 상반기보다 5만가구나 더 많다. 이중 가을 성수기를 앞둔 8월 이후 분양되는 물량만 18만9142가구다. 하반기 전체 가구 수의 78%나 된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은 쏟아지는 물량 속에서 차별화를 가지기 위해 자신들의 기술력과 상품성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소비자들의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평택

틈새면적 극대화 '중형같은 소형'



현대자동차그룹 주력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오는 8월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산 12-2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평택' 2807세대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평택은 세교지구 내 총 3개의 블록에 걸쳐 지하 2층~지상 28층 33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64~101㎡로 구성된 2807세대다. 이 중 전용면적 64~84㎡ 822세대를 시작으로 8월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평택은 최근 완판 행렬을 보이고 있는 전용면적 85㎡이하(64?73㎡)의 소형 물량이 풍부하며 틈새면적을 극대화한 설계로 중형과 다름없는 실사용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남향위주의 단지배치와 넉넉한 동간거리 이격을 통해 단지의 개방감은 물론,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 등에도 신경을 썼다.

세계적인 시각디자이너 장 필립 랑클로와 공동 개발한 힐스테이트 아트 컬러 모던타입을 적용해 각 주동은 Yellow, Green, Blue 등의 색상을 조합해 힐스테이트만의 외관을 차별화했다.

세대 내부는 주택 타입에 따라 자녀방의 학습공간을 강화한 평면을 선보이며 일부 주택형은 자녀방 2개소에 별도의 학습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광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에 취약한 공간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셉테드(CPTED :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구성헌 기자 carlove@

GS건설 광교 파크자이 더테라스

테라스에 4베이 판상형 구조 설계



광교신도시에 전 세대 테라스하우스가 공급된다.

GS건설은 오는 20일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84~115㎡ 268가구 규모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84㎡ 121가구 △107㎡ 119가구 △113㎡ 26가구 △115㎡ 2가구로 구성된다. 총 14개의 다양한 타입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는 전 세대 실용도 높은 4베이(Bay) 판상형 구조에 남향 위주 배치, 2.4~2.5m의 높은 천장고 등의 설계를 선보인다. 특히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최고층은 복층으로 설계돼 테라스와 다락공간을 제공한다.

반면 1층 하부의 지층형 테라스 세대(T1~T3)는 2.5m의 높은 천장고와 전면부에 약 6m 넓이의 광폭 테라스가 제공돼 전용 84T 타입의 경우 약 84㎡의 테라스가 제공돼 세대 전면에 전용 면적 수준의 테라스 공간이 서비스로 제공된다.

세대 전면 폭을 100% 활용해 1층 테라스 면적이 넓고, 2층과 3층도 전면에 테라스가 설계된다.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는 스마트폰 연동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되는 최첨단 단지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 안팎에서 불을 끄거나 켤 수 있다.

오는 9월 문을 열 예정인 이마트도 가깝다. 박태진 기자 tjpippo@

대우건설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2040가구 안산 최고층·초대형 단지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손잡고 안산시 최고층 대단지인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를 지난 주 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일반 분양에 돌입했다.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지하 4층, 지상 38~47층 아파트 9개동 1600세대와 지상 23층 오피스텔 1개동 440실 총 2040가구로 구성된 초대형 단지로 안산시 최고층의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59㎡A 175세대, 59㎡B 82세대, 59㎡C 45세대, 74㎡A 308세대, 74㎡B 153세대, 74㎡C 114세대, 84㎡A 362세대, 84㎡B 138세대, 84㎡C 223세대로 전 세대 중소형 단지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18㎡A 132실, 18㎡B 44실, 18㎡C 44실, 22㎡A 132실, 22㎡B 44실, 22㎡C 44실로 구성돼 있다.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안산시에서 최고층인 47층으로 시공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서 2040 가구에 이르는 대형 단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한편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의 3.3㎡당 평균분양가는 아파트가 900만원대 초반이며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오피스텔 평균분양가는 3.3㎡당 400만원 중반대로 예상된다. 견본주택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5번지(치항병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18년 8월 예정이다.

구성헌 기자 carlove@

한화건설 동래 꿈에그린

선호도 높은 전용 84㎡ 전세대 구성



한화건설은 이달 말 부산 동래구에서 입지와 상품특화 등을 내세운 '동래 꿈에그린'을 분양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최고 49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732가구 전체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다. 지역을 대표하는 초고층 단지의 상징성과 함께 주택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전용 84㎡의 실용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한화건설 측은 설명했다.

특히 단지는 한화건설의 노하우가 담긴 특화평면들이 도입돼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한 평면을 선보일 전망이다. 방 3개와 거실이 전면에 배치된 4베이(Bay) 설계, 채광과 통풍이 뛰어난 판상형 구조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다.

우선 '동래 꿈에그린'은 부산지하철 4호선 낙민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또한 1·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 1,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도 가깝다.

동래고, 사직고, 동래여고 등 명문학군이 조성돼 있고 홈플러스, 메가마트 등 쇼핑시설도 가까워 뛰어난 주거편의성을 갖춘 곳으로 평가된다. 부산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천천 시민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으며, 대규모로 조성예정인 수민어울공원도 가까워 도심 속 풍부한 녹지를 누릴 수 있다.

분양홍보관은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센텀큐빌딩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델하우스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129-7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8년 12월 예정. 박태진 기자 tjpippo@

부영주택 춘천장학 사랑으로 부영

330세대 공공임대·40세대 일반분양



부영주택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993번지(장학지구 S블럭)에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370세대를 임대 및 분양한다고 밝혔다.

'춘천장학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0~16층 7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84㎡ 330세대, 143㎡ 40세대 총 370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84㎡ 330세대는 공공임대로, 143㎡ 40세대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임대가격은 전용면적 84㎡는 임대보증금 9600만원에 월임대료 42만원이며, 전세가격은 1억8000만원에 공급된다. 전용면적 143㎡의 분양가격은 기준층 기준 3억7000만원이다.

청약은 8월 17일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대상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인터넷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청약 당첨자 계약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부영 춘천장학 분양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입주는 2015년 9월 예정.

또한 단지 앞 장학초교를 비롯하여 한림성심대, 춘천여고, 강원중고교가 인접해 있고, 반경 5km 이내에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등 명문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춘천장학지구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1시간 이내에 진입 가능하다. 또한 국도 56호선과 연접해 있고 인근 동면IC를 통해 중앙고속도로 및 춘천고속도로와 접근이 용이하다.

구성헌 기자 carlove@

HYUNDAI DEPARTMENT STORE 압구정본점 · 무역센터점 · 목동점 · 대구점

ANDERSON
ANDREA D'AMICO
BULLETTO
CA4LA
CYPRIS
ESPERANTO
FIVE WOODS

L'DONOVAN
MAISON de HIROAN
MSPC
ORCIANI
OROBIANCO
RIMOWA
STEFANO MANO

ROYAL MILE
그 남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 로열마일
프리미엄 남성잡화 편집숍

예탁원, 소유한도제 검토 거래소와 분리 속도 내나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따른 지배관계 해소 위해
현재 지분 70.4% 최대주주… 자본시장법 손질
어제 합동자문위 개최 "아직 위원 의견 수렴 단계"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지배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주식 소유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주주의 지배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소유한도제를 도입한 뒤 거래소가 소유한 예탁결제원의 주식을 예탁결제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매각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2차 합동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소유구조 개편 등 경영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0명과 자문위원 22명 등이 참석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이행을 위한 예탁결제원 소유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했다. 거래소는 예탁결제원 지분 70.4%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기업공개(IPO)하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등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역시 거래소의 자회사로 포함된다. 민간기관인 거래소가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을 자회사로 두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지분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예탁결제원은 소유구조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주식 소유 한도제를 도입하고 거래소의 지분을 단계별로 처분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특정 주주의 지배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 주식 소유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인만큼 소유한도가 규정돼 있는 거래소와 대체거래소(ATS) 등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과 같이 지주회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또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유한도와 관련된 정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에는 주식 소유한도 명시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예탁결제원의 정관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유재훈 사장은 지난달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을 분리하는 문제의 논리적 근거는 금융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리로써 이해상충 방지에 있다"며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구상해 예탁결제원의 수익성과 주식의 환금성이 좋아지게 만들어 소유구조를 해소하는 데 용이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미 (주식 소유한도제는) 거래소나 다른 청산기관에 도입이 돼 있는 제도"라며 "예탁결제원 역시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자문위원들에게 의견을 듣는 단계로 본격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펀드온라인코리아 유증 자본금 100% 218억 규모

펀드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펀드온라인코리아의 유상증자 규모가 자본금 100% 규모인 218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한 기존 주주들의 5% 제한 출자 지분 완화가 해소되는 대신 제3자 배정 참여는 일단 배제하기로 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4개 운용사로 구성된 펀드온라인코리아주주협의체는 여의도 금투협에서 간담회를 갖고 유상증자 규모와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지난달 효과적인 유상증자 등 경영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46개 주주사 가운데 유증에 참여하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펀드온라인코리아 주주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가 오간대로 자본금 100% 수준인 21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규모를 이날 주주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했다"며 "주주협의체에서 유증 규모가 확정된 만큼,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오는 20일 이사회를 거쳐 유상증자 규모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상증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각 주주당 5%로 제한된 출자 지분 완화는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9월에서 늦어도 10월초까지 유증이 진행될 방침인데, 만약 실권이 나면 지분 추가 인수를 원하는 기존 주주들 위주로 1차 배정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논의됐던 제3자 배정 방식은 이번 유상증자 때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

TR 선정… 장외파생상품 정보 거래소에 모인다

〈거래정보저장소〉

예탁결제원과 유치전서 승리
7500조 상품 관련정보 관리

한국거래소가 한국예탁결제원과의 경쟁 끝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로 한국거래소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와 위험 등을 보관·분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금융기관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이후 3일 내 거래 상대방과 거래 규모 등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시장 규제 강화를 위한 2009년 G20회의 합의의 일환으로 거래정보저장소 도입이 국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위도 2013년 6월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거래정보저장소 도입을 추진했고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정 희망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정보저장소의 국제기준과 운영사례 등에 대한 사전연구를 거쳐 올해 7월 금융감독원과 업계 전문가 등 14인으로 '거래정보저장소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를 통해 거래정보저장소 운용계획 적정성, 국제 정합성, 보안 및 비용 효율성, 보고 편의성, 업무 전문성, 활용성 등 6개 항목 등 16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거래소는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거래 잔액만 7500조원에 달하는 장외파생상품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수많은 정보가 효율적으로 집중·관리되면서 거래 투명성 제고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효과가 예상된다"며 "거래소를 중심으로 집중 대상 거래정보 구체화, 전산시스템 개발 등 거래정보저장소 구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gamja@

다음카카오·에스엠·한글과컴퓨터 외국인·기관 함께 산 코스닥 3종목

중국발 쇼크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으로 사들인 종목에 관심이 모인다. 국내 증시를 좌우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인 만큼 이들이 함께 매수하는 종목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13~8월 17일 한달간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 상위 20개 중 공통으로 사들인 종목은 다음카카오·에스엠·한글과컴퓨터 세 종목이었다.

지난 13일 기관이 다음카카오를 34만 6970주를 사들였고, 한글과컴퓨터는 17일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만1884주, 6만5334주 매수하며 공통매수 상위 종목에 새롭게 등장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한류 열풍의 선봉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해외 사업의 견조한 성장세에 꾸준히 베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에스엠은 실적 호조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연결기준 사상 최고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8월 3일부터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도 에스엠 실적 발표 후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시키는 추세다.

7~8월 기관 · 외국인 공통 매수 종목
7월13일~8월17일

기관		외국인
순매수거래량	한글단축종목명	순매수거래량
378,862	다음카카오	491,063
1,118,582	에스엠	1,107,068
663,969	한글과컴퓨터	319,493

다음카카오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다음카카오의 신사업을 꾸리고 있어 장기성장 전망을 높게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창권 대우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톡이 가진 기존 수익모델의 성장성 둔화 우려가 현실화됐지만 신규 수익 모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카카오택시와 카카오채널, 샵(#)검색 등 다음카카오가 새로 내놓은 서비스가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근 중국, 인도 등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해 2017년까지 그룹 매출을 1조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한글과컴퓨터가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유현 기자 yhssoo@

유진투자·中 광대증권 제휴 올해 안 후강퉁 서비스 개시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13일 상하이 중국 광대증권 본사에서 중국 광대증권과 포괄적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중국 증권사와 4번째 업무제휴를 체결한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제휴를 통해 올 하반기 중에 광대증권과 매매시스템을 개발하여 후강통 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주식 거래 서비스뿐 아니라, 광대증권에서 발간하는 리서치 자료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현지의 전문 투자 정보를 발빠르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한상기업 엑세스바이오를 성공적으로 기업공개(IPO)한 경험을 기반으로 중국 내 우량기업 IPO 등 해외 IB 비즈니스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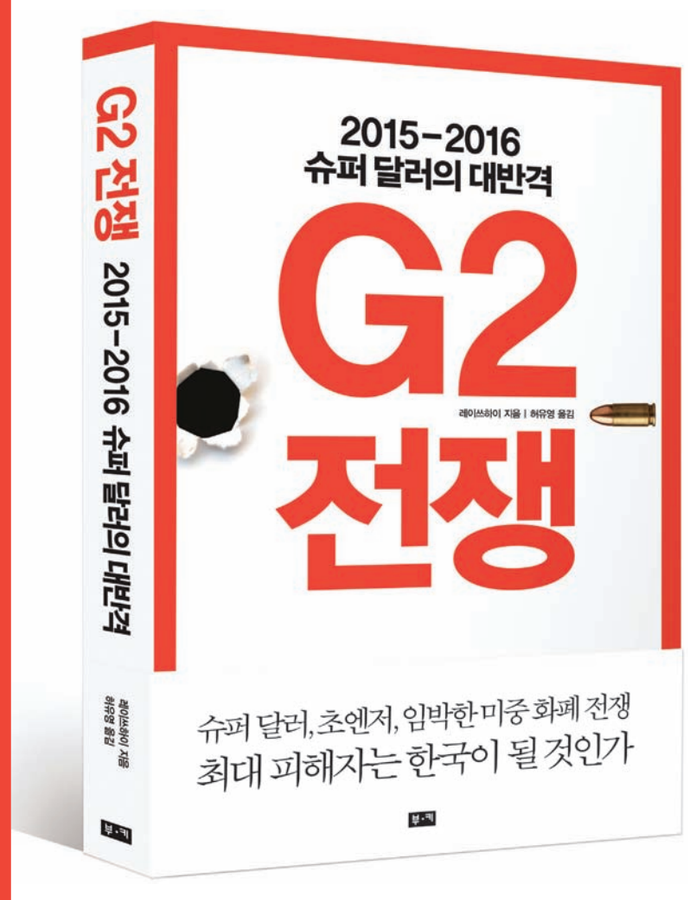
양사는 한국과 중국 각국의 시장 특성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공동 개발해 양국 투자자들에게 교차 판매함으로써 글로벌 영업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 슈에펑(XUE FENG) 광대증권 중국 CEO, 천홍(CHEN HONG) 광대증권 홍콩 CEO.

광대증권은 광대은행, 광대영민인수보험 등을 보유한 중국 광대그룹의 계열사로, 1996년 설립되어 2009년 중국A주 시장에 상장된 중국 내 10위권의 종합증권회사다. 브로커리지, 고객자산관리, IB 부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김희진 기자 heejin@



미·중 화폐 전쟁 초읽기
한국 경제 최대 위기가 온다

슈퍼 달러, 'G2 파트너' 중국 자본 시장을 정조준하다

"미국 금리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IMF의 「201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 전망」(2004년 10월)

2015-2016 슈퍼 달러의 대반격 G2 전쟁

레이쓰하이 지음 | 허유영 옮김 | 14,800원 부·키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엘아이에스, 레이저 부활·면세점 출격 '겹호재'



엘아이에스 주가 추이
단위: 원
최고 35000
최저 4500
25000
5000
2013년 2014년 2015년 8월3일

기존 레이저 사업 상반기 매출 1000억…작년 전체의 3배
신사업 사후면세점 연내 4곳 추가 오픈 "고속성장 박차"

엘아이에스가 겹호재를 맞았다. 기존 레이저 사업이 부활의 신호탄을 쐈고, 새롭게 추진하는 면세점 사업은 하반기 본격화한다.

19일 엘아이에스에 따르면 이 회사 레이저사업부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매출액(369억원)의 약 세 배가량인 1000억원이 넘는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회사 측은 "하반기 추가 수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엘아이에스의 레이저 사업은 지난 2011년 매출액 633억원과 영업이익 66억원을 올리며 승승장구했다. 그해 6월 2일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했다. 하지만 이듬해 삼성 LG 등에서 OLED TV 투자가 미뤄지고 인력이 크게 늘면서 대규모 적자로 전환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280명의 직원을 110명으로 줄이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해외 매출 비중을 80%로 늘리고, 저가 수주도 완전 차단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 상반기 영업이익 58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54억1900만원으로 165.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45억32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엘아이에스는 신사업인 면세점 사업도 하반기 본격화한다. 현재 4곳에서 운영 중인 사후면세점을 서울, 인천, 제주 지역에 연말까지 4곳을 추가 오픈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제주도 유일의 백화점인 JSM 백화점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JSM 백화점 내에는 국내 최대의 면세 화장품 매장인 '진선미듀티프리' 매장과 한류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잡화 매장을 선보인다. 이어 원간보 매장과 인삼매장도 추가로 오픈한다.

사후면세점은 기존 고가 명품 위주의 일반 면세점과 달리, 국내 기업이 생산한 중저가 제품을 판매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비과세 상점이다.

엘아이에스는 올해 호텔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대구 등의 지방공항 면세점 사업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내 온라인 유통사업도 추진 중이며, 의료융합 관광 컨텐츠를 개발해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확산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윤장원 엘아이에스 대표는 "사후면세점과 레이저 장비 제조의 핵심 사업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하이쎌, 고강도 구조조정… "하반기 턴어라운드"

BLS 등 적자사업부 정리
해외 터치스크린모듈은 강화
베트남에 1차협력사 추가 확보

하이쎌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적자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해외 TSM(터치스크린모듈) 사업을 강화해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시도한다.

19일 하이쎌에 따르면 반기보고서를 통해 연결기준 반기누적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3.9% 늘어난 28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올해 2분기에만 6억5000만원으로 1분기 22억4000만원 대비 70.9%감소해 손실규모가 대폭 감소했다.

이용복 대표이사는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작한 BLS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결과가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해 1분기 대비해 큰 폭으로 손실 규모가 줄었다"며 "베트남에서 양산중인 TSM(터치스크린모듈)은 1차협력사를 추가로 확보해 수주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하반기부터는 구조조정 효과와 수주 확대로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이쎌 주가
단위: 원
2,000
1,250
1,415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19일

또한 "메르스 여파로 줄어들었던 자회사 글로벌텍스프리(GTF)의 매출도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연결기준 재무제표는 기대 이상일 것"이라며 "그 동안 연구개발에만 매진했던 인쇄전자 사업에서도 바이오를 융합한 바이오인쇄 전자 사업부문 매출이 시작돼 하반기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쎌은 생산기지를 베트남에 두고 TSM을 양산해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 IT부품 회사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양산을 함에 따라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더존비즈온, 에이플러스에셋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완료

기업 전산실에 인프라 구축
고객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더존비즈온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인 D-Cloud Private Edition을 에이플러스에셋에 구축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이플러스에셋은 국내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한번에 비교, 분석해 판매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GA회사(법인보험대리점)로 보험과 펀드, 부동산, 세무 등 전방위적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종합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에이플러스에셋이 도입한 D-Cloud Private Edition은 기업 내부 전산실에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해 사용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이다. 더존비즈온이 획득한 다수의 클라우드 보안 특허 기술이 적용된 것은 물론, CC인증까지 획득하며 뛰어난 보안성이 장점이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 특성에 따라 불필요한 IT 투자를 방지해 비용을 절감하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던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다. 중앙 집중적인 IT관리가 가능해 직원별 권한, 라이선스 관리 등 관리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수도 있다.

에이플러스에셋 관계자는 "D-Cloud Private Edition을 도입하면서 회사의 성장에 맞춘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지키고 내부 정보 유출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보안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더존비즈온 주가
단위: 원
21,000
19,000
10,000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19일

한편, 더존비즈온은 이 같은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기업별 규모에 맞춰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한 D-Cloud Private Edition 2.0 버전을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다.

신제품은 기술적으로 오픈스택(OpenStack)을 지원하는 한편, D-Cloud 센터의 최신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DR(재해복구)센터 구축 서비스 등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성공을 바탕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쟁력까지 높이며 클라우드 사업 분야에서 매출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トレインクラッシャー for Kakao'
소프트맥스, 구글 플레이 출시

소프트맥스는 자사의 모바일 액션게임 '트레인크래셔 for Kakao : 혁명의 랩소디'를 카카오 게임하기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케이드 게임 같은 조작감과 2D 액션이 차별화된 모바일 액션게임 트레인크래셔 for Kakao는 '대사변'으로 세계가 멸망한 후 4명의 레지스탕스가 기득권 세력 '에이토스'의 상징인 열차를 파괴하는 스토리로 구성됐다.

지난 6월 국내 출시와 동시에 중국 퍼블리셔와 판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 시장을 동시 공략 중으로, 이번 카카오 게임하기 버전의 국내 출시 이후 북미 및 일본, 동남아, 남미 등 해외 지역 진출을 확대 할 예정이다.

트레인크래셔의 카카오 게임하기 버전에는 소셜 시스템이 대폭 개편됐으며 장비에 보석을 장착해서 더욱 강력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오브 시스템 등의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됐다.

정유현 기자 yhssoo@

오텍, 앰뷸런스 수주 늘며 하반기 실적 청신호

상반기 매출 2623억·7.14% 늘어
오텍캐리어 에어컨 판매도 한몫
中·유럽 진출에 실적 증가 기대

특수목적차량 전문기업인 오텍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26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매출 증가는 오텍캐리어의 해외 수출부문에서의 꾸준한 성장 및 내수 판매 증대에 기인했다. 오텍캐리어냉장의 시장 지배력 확대 역시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회사 측은 환율이 약 5% 상승하며 기업 외적인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오텍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상반기 보다 하반기 매출과 실적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며 "하반기 물류차량의 수주 잔고의 증가 및 민간 앰뷸런스 공급 물량 상승, 무더위로 인한 오텍캐리어의 에어컨 매출 증가가 반영돼 하반기 실적 증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텍 주가
단위: 원
9,000
6,000
5,870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19일

실제로 7월 마지막 주 오텍캐리어 에어컨 판매실적은 전주 대비 3배 증가했으며, 7월 한달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이외에도 오텍캐리어는 중국 가정용 에어컨 시장에 2015년형 '이서진 에어컨'이 진출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예정에 있다 또한, 유럽 시장에 진출한 인버터 하이브리드 보일러는 글로벌캐리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터키, 오스트리아, 체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 유럽과 CIS, 러시아, 호주 및 북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오텍은 국내 최대의 특수목적차량 전문기업으로서, 의료차량, 복지차량, 냉동물류차량 등 특장차 분야 국내 1위 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최첨단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했으며,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권 편의를 위한 선진국형 장애인차량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유원컴텍 '롤투롤 인쇄전자' 시장 첫 발

최대주주 삼수홀딩스, 토바와 제휴
세계 시장규모 30조… 가능성 높아

유원컴텍은 최대주주인 삼수홀딩스가 롤투롤 인쇄전자(Roll to Roll e-Printing) 시스템 장비 전문기업인 토바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롤투롤 인쇄전자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롤투롤 장비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토바는 연구개발 및 제조·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게 되며, 유원컴텍은 개발된 장비의 판매·설치 등을 맡는다.

토바는 롤투롤 인쇄전자로 회로기판을 제조하는 기계장비 제조기업이다. 롤투롤 인쇄전자 시스템의 설계·개발·설치는 물론 롤투롤 장비에 대한 측정 및 유지보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토바의 이 기술은 롤투롤 인쇄전자분야의 '국제표준특허'로 등록됐다.

롤투롤 인쇄전자기술은 전자회로, 센서, 디스플레이, 전자 부품 등의 다양한 전자 재료를 마치 신문을 인쇄하듯 플렉시블한 필름 위에 인쇄하는 기술이다. 대량생산이 가능해 미래를 선도할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다. 또 기존의 반도체 공정과는 달리 생산 과정에서 재료의 소모가 거의 없고 유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

회사측은 토바의 이러한 양산기술을 통해 반도체는 물론 모바일 전자기기, 가전, 자동차, 조명, 의학, OLED, 전자종이, 유기 및 박막 태양전지, 배터리 등으로의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원컴텍 관계자는 "롤투롤 장비만 전 세계 30조 시장으로 현재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본 기술을 카피해 롤투롤 장비를 제조 공급하고 있다"며 "국내 2조 시장 중 10%만이 국산장비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롤투롤 원천기술을 보유한 토바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바의 대표인 신기현 교수는 현재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과 교수로, 동 대학 유연디스플레이 연속공정 연구소 소장과 한국 인쇄전자 협의회(KoPEA)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한빛소프트 모회사 티쓰리엔터
'오디션' 독자 서비스 체제 전환

온라인게임 오디션을 두고 와이디온라인과 티쓰리엔터테인먼트 간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빛소프트의 모회사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와이디온라인에 "게임 퍼블리셔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개발사와의 지난 10여년간의 의리를 훼손시키는 행위 일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계속 어길 시 법적 소송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2005년 9월 6일, 와이디온라인의 전신인 '예당 온라인'과 클럽 오디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이해관계 아래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008년 7월경 '오디션 판권 연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사항은 오디션의 1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었던 2010년 9월에 맞춰 '5년 추가 재연장'이 주요 골자였으며, 이를 합의한 양사는 개발과 서비스를 합의 아래 진행해오고 있었다.

최근 와이디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과는 정반대로 10여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서비스 재연장을 합의해준 바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판권 연장 종료 기한인 오는 9월 30일이 지나면 지난 2005년부터 10여년을 맺어온 와이디온라인 측과의 퍼블리싱 계약은 종료된다. 8월 30일 이전에 와이디 측은 '오디션 서비스 종료 공지'를 공식화해야 하며,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와이디 측과 계약이 종료되면 오디션의 국내외 독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현대아이비티 '비타브리드', 中 국대약방서 판다

시노팜 계열 약국체인 업체
연내 中 정부 위생허가 기대

현대아이비티가 지난 13일 중국 약국체인 '국대약방'과 현대아이비티의 비타브리드 제품들을 중국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사업제휴 업무약정(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대약방'은 연매출 40조원의 국영기업 국약홀딩스(시노팜) 그룹 계열사로 국약홀딩스는 중국내 1만351개 병원과 7만8238개 보건소 및 진료소, 5만4452개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중국 최대의 제약 및 제약유통 그룹사다.

현대아이비티 측은 비타브리드 제품이 일본의 까다로운 성분검사와 수입허가를 통과했고, 일본 내에서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국대약방이 현대아이비티에 사업제휴를 제안해 와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현대아이비티는 비타브리드 제품의 중국 수출을 위해 올해 초부터 위생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연말쯤 중국 정부로부터 위생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기 현대아이비티 대표는 "중국의 메이저 의약품 유통채널인 '국대약방'이 비타브리드 제품군에 러브콜을 보내온 것은 일본과 같이 중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음을 확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아이비티의 비타브리드 제품의 원천기술인 유무기 전달체기술은 세계 각국에 특허 등록되었고, 네이처지의 하이라이트에 선정됐으며, 미국화학회지(JACS), 독일화학회지(Angewante Chemie-International Edition)의 표지 논문으로 소개된 바 있다.

또한 미국재료학회에서 8대 혁신기술로 소개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차세대 바이오기술이다.

문선영 기자 moon@

4,724km의
이동거리

127번의 집밥

18,459,361번의
좋아요와 댓글

737,197명과의 만남

31일간의 무전여행을 통해
연결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기술을 넘어 사람을 연결하는 일
속도를 넘어 진심을 연결하는 일
그렇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끊임없이 알게 해주는 일

**SK텔레콤은
그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연결의 무전여행
www.sktconnect.com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대한민국 광복 70년을 축하합니다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SK telecom